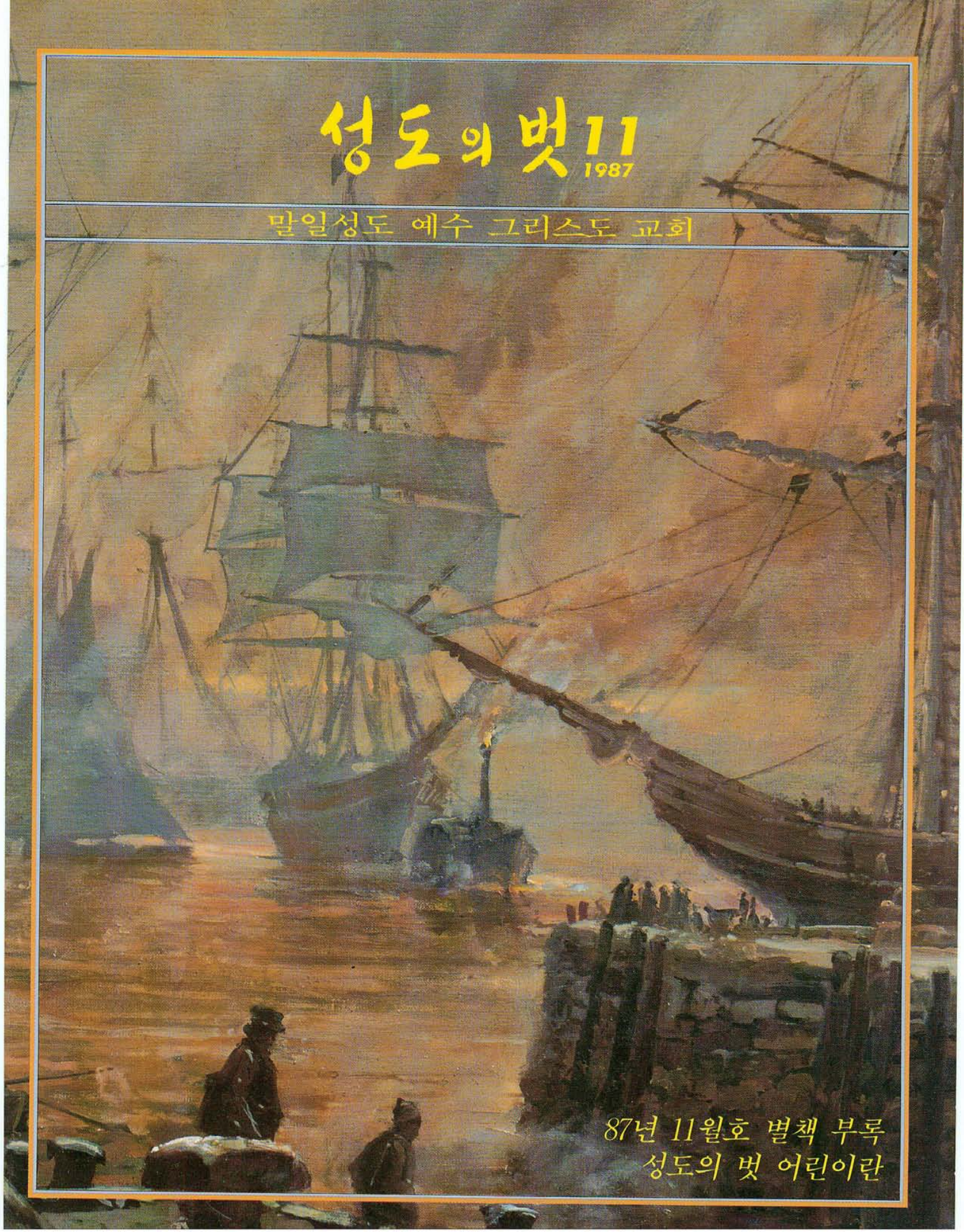
성도의 벗 11
19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87년 11월호 별책 부록
성도의 벗 어린이란

성도의 벗

1987년 11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즈 엠 패터모어, 데릭 에이 커스버드.

통 권 : 제259권, 제23권, 제1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7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제 한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성 근
International Magazine PBMA8711KO
PRINTED IN KOREA 11/87
©1987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벗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델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는 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및 타이어로는 격월간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어로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벗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금년은 영국 제도에서 말일성도 선교 사업이 시작된 지 150년째 되는 해이다. 수만 명의 개종자들이 대서양을 건너 와 미합중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초기 교회를 강화시키고자 했다. 켄 백스터가 그린 이 그림은 1851년에 영국의 리버풀로부터 항해하는 몇몇 성도들을 묘사한 것이다. 이번 호의 영국에 관한 특별 기사를 참조한다.

목차

2 대관장단 메시지 : 세상에 선포한다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8 "그 땅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사업"

13 영국에서 있었던 개종 이야기

17 방문 교육 메시지 : 축복과 책임

18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보다 더 "훌륭한 길"을 추구함 —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24 결혼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28 칼로스 디안젤로 : "내가 노력하면 축복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 헥터 에이치 페루조티

32 기혼자와 독신자에게 주는 권고 — 캐슬린 루벡

36 질의 응답 — 제스 엘 크리스텐슨

38 통찰

39 인생 여정에서의 행복 — 밀드레드 바델

청소년란

42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을 인도함 — 웨인 비 린

44 기이한 업적 — 크리스 크로우

47 "오늘날 택하라" — 바바라 제이콥

48 견디라 — 제닌 윌시 밧스가아드

성도의 벗 어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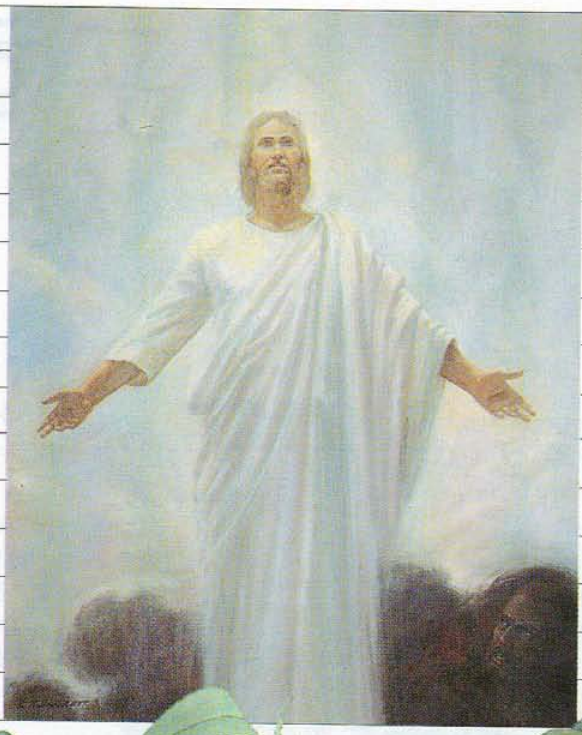
2 친구가 친구에게 : 찰스 디데이 장로 — 리차드 엠 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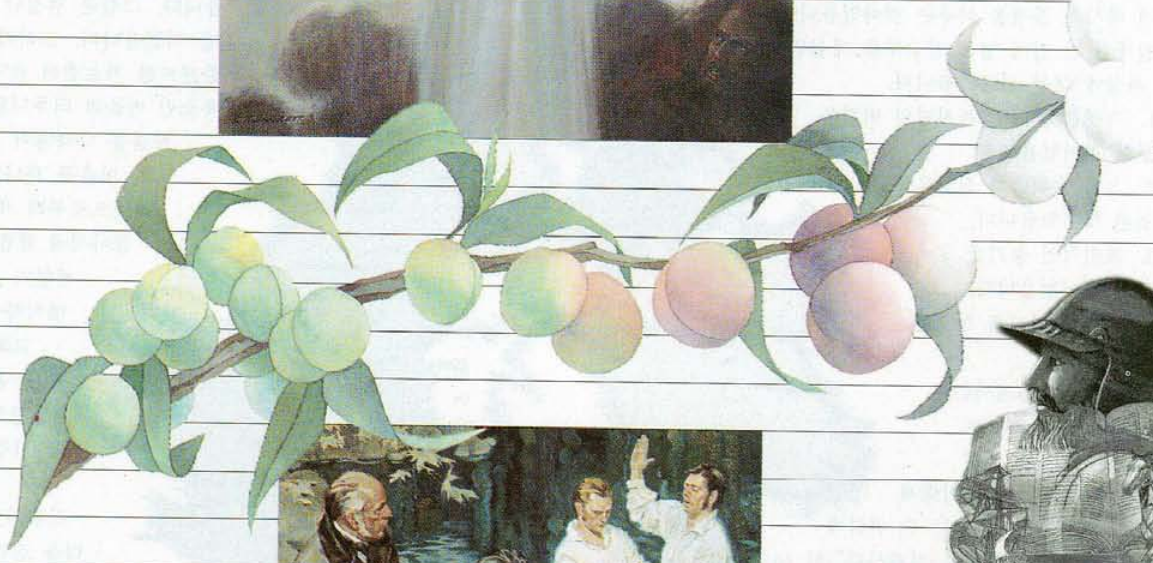
4 더크와 축구공 — 레오 디 홀

6 용감한 왕비 에스더 — 제인 맥브라이드 쵸트

8 점선 잇기 — 로버타 엘 페어올

교회 및 지역 소식





세상에 선포한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일보좌

금년 초 대영 군도에서 대관장단, 십이사도 평의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 및 대영 제국의 말일성도가 참여하는 가운데 다섯 차례 큰 대회가 열렸읍니다. 이러한 대회는 영국 섬나라에서 교회 일백오십 주년을 경축하는 여러 가지 행사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었읍니다.

일세기 반 전에 영국 선교부를 개설한 것은 온 세상에 대한 선포였읍니다.

1. 그것은 위대한 복천년의 비젼을 선포한 것이었읍니다.

2. 그것은 위대한 신앙을 선포한 것이었읍니다.

3. 개인적인 용기를 선포한 것이었읍니다.

4. 영원한 진리를 선포한 것이었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절정의 시기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그 말씀은 그런 엄청난 사명을 수행하기에는 재산도 없고 세상적인 위치도 없는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사명이었읍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읍니다.

이 말일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저들이 나아갈 것이매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교성 1 : 1~2, 4~5)

1837년 6월에, 히버 시 킴볼은 요셉 스미스에게서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복천년의 임무가 1830년대 커틀랜드의 농촌 지역과 그 주변에 사는 소수의 말일성도에게 주어졌읍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읍니다. 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성전을 지었읍니다. 그러자 원수의 세력이 커틀랜드를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하여 탐욕스런 마음과 터무니없는 억측 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돌아서게 했읍니다. 사람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대적하여 돌아섰읍니다. 교회가 흔들렸으며 충실한 성도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둔 사람들을 걸러 내는 일이 크게 진행되었읍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것은 일부 회원은 오하이주에 있고 일부는 미주리주에 있어서 일천이백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가운데 변변한 통신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읍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인 1837년 6월 4일 일요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히버 시 킴볼 장로에게 왔읍니다. 그때 킴볼 형제는 "커틀랜드에서 성전의 멜기세덱 방향의 성찬대 위의 단상 앞에 앉아 있었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에게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나의 종 히버가 영국에 가서 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민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게 하라."고 속삭이셨읍니다.'"(*교회 정사*, 2 : 490)

원하신다면 한번 세상의 재물은 극히

적은 사람이 방금 선교 사업을 마치고 와서 실제로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대양을 건너 가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이 적은 사람은 집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미국의 개척지 끝에 있었으며 교회 전체 회원이 아마 15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비젼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복천년의 비젼이었읍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행해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영국 섬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읍니다.

히버 시 킴볼 장로와 그의 동료들이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가야 한다는 부름은 예언자 요셉이 이 회복된 사업의 위대한 운명을 선언한 것이었읍니다. 그때 이후로 이 비젼이 희미해진 적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그때 이후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원수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한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사업이 성장하고 넓혀져서 현재 우리에게는 192개의 선교부가 있고 75개 주권 국가와 18개의 영토, 식민지, 영지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많은 것이 행해졌으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행하지 못했으나 수많은 나라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진리의 사자들이 오하이오와 미주리의 암담한 시기에 일곱 사람에게 영국 섬 나라로 가라는 부름을 줄 때 펼쳐졌던 그 위대한 복천년의 시현을 성취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부름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굉장한 신앙을 선언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때 킴볼 형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 임무를 생각하면 거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읍니다. 나는 나에게 지워진 짐 밑에서 거의 땅 밑으로 가라앉아 버릴 지경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데 열성이었던, 히버 시 킴볼은 보우트를 도크에 대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해안가에 뛰어들었다.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는 수천 명의 영국인 개종자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미합중국에 이민해 온 많은 사람들은 켄 백스터의 이 그림에 묘사된 대로 영국의 리버풀에서 항해를 시작했다.

TRUTH WILL PRE

영국의 프레스톤 시에 도착한 히버 시 킴볼과 그의 선교사 동반자들은 "진리가 이긴다"라고 적힌 선거 구호 깃발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선교 사업의 모토로 그 슬로우건을 채택했다.

내게 맡겨진 의무를 수행하는 길을 막지는 못했읍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바로 그 순간 그분이 당신의 전능하신 권세로 나를 지지해 주시리라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자질을 부여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느꼈읍니다. 비록 가족이 나에게 중요하고 그들을 거의 거지 상태로 버려 두고 가야 하지만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업이 다른 어떤 고려 사항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읍니다."(올슨 에프 횟트니, *히버 시 킴볼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45년, 104페이지)

올슨 하이드와 윌라드 리차즈와 조셉 필딩도 그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응답했으며 이 네 사람은 뉴욕에서 존 굿슨, 아이삭 러셀, 존 스나이더와 합세하게 되었읍니다.

리차드 머리 그림

프레스톤

6월 13일 화요일이 커틀랜드를 떠나게 되어 있는 이 네 사람의 출발 예정일이었읍니다. 그날 아침 킴볼 가족을 본 어떤 사람이 그때 떠나는 아버지가 드린 기도와 뒤이어 "자신의 직분에 의거하여 축복사처럼 각각 한 사람씩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축복을 남기고 자신이 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종사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을" 묘사해 두었읍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울음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참지 못하는 그의 주위의 사람들의 흐느낌 때문에 그의 음성을 거의 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읍니다.… 그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의 뺨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그는 가끔 말문을 잊지 못할 수밖에 없었읍니다."(횟트니, *히버 시 킴볼의 생애*, 108~109페이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신앙과 용기밖에 없었읍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읍니다. 총관리 역원 한 사람이 외투도 없는 히버에게 외투를 한 벌 주었읍니다. 어떤 여성이 그에게 오 달러를 주어 그는 그 돈으로 자신과 올슨 하이드가 버팔로로 가는 차비를 했읍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매서츄세츠를 거치면서 윌라드 리차즈의 형제로부터 사십 불을 모았읍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친지들을 만났으며 6월 25일 일요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집행한 다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했읍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리버풀까지의 각자 운임인 십팔불씩 만들어 냈읍니다. 그들은 7월 1일 오전 10시에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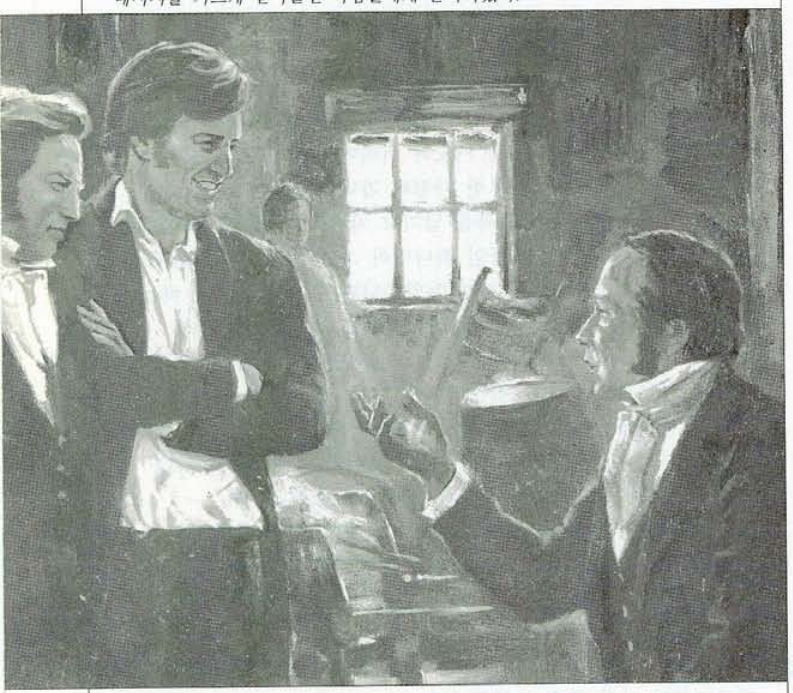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과 용기를 선포한 것입니까! 그 용기에는 열성의 정신도 깃들어 있었읍니다. 그들의 배는 열여드레 열여덟 시간 동안 바다 위를 항해한 다음 리버풀의 부두 옆에 있는 머시 리버로 들어갔읍니다. 리버풀에서 그들은 북쪽으로 백삼십 리쯤 떨어진 프레스톤 마을로 가라고 지시하는

프레스톤 시 광장은 총관리 역원들이 행한 노천 집회 장소였다.

로버트 티 배렛 그림

프레스톤 복스헐 채플에서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의 설교로 인한 수많은 개종자

프레스톤 시에서 일한 후에, 히버 시 킴볼은 근처 챗번 마을에서 말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큰 헛간이 집합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킴볼 장로는 복음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챗번

로버트 티 배렛 그림

성령의 속삭임을 느꼈읍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국회 의원 선거로 들떠 있는 어떤 도시를 발견했읍니다.

그들이 프레스톤에서 피셔게이트 스트리트로 올라가는 동안 "진리가 이긴다."라는 문구가 있는 깃발이 그들 앞에 펼쳐졌읍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선교 사업의 좌우명으로 채택했읍니다.

그들의 사업은 즉각적으로 영원한 진리의 선포가 되었읍니다. 그들은 처음에 복스홀 예배당에서 가르쳤으며 그곳의 목사는 그들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인 조셉 필딩의 형제였읍니다. 그 설교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파함으로써 그 다음 일요일 리블 강에서 열한 명의 영혼이 침례받는 결과를 낳았읍니다.

1837년 7월의 그날 이후로 그들의 진리의 메시지는 그들을 뒤이은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반복했으며 그 메시지는 영국 섬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읍니다.

나는 그들을 뒤따라 영국으로 간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는 첫 임지로 프레스톤으로 보내진 것이 특별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일했을 뿐 아니라 그 첫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친 그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일했읍니다. 나는 그들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했읍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그들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었거나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읍니다.

나는 도착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았읍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몸이 아픈 것과 우리가 느낀 박해 때문에 낙담했읍니다. 나는 집에 계시는 선하신 부친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나의 시간과 부친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분은 나의 부친이고 스테이크 부장이었으며 또 현명하고 영감받은 분이었읍니다. 그는 매우 짧은 편지를 쓰셨는데 이렇게 적어 보내셨읍니다. "사랑하는 고든에게. 네가 최근에 보내준 편지를 받았다. 제안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네 자신을 잊고 나아가 일해 다오." 그날 아침 그 편지를 받기 전에 동반자와 나는 경전 공부 시간에 주님의 이런 말씀을 읽었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 : 35) 주님의 이 말씀과 그 후에 받은 부친의 훈계는 나의 영혼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읍니다. 나는 부친의 편지를 손에 들고 우리가 살고 있던 와담가 15번지에 있는 집의 우리 방으로 가서 무릎꿇고 주님에게 맹세했읍니다. 나는 그분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잊고 또 잃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읍니다.

1933년 7월의 그날은 나의 결정일이었읍니다. 내 생활에 새로운 빛이 또 가슴에 새로운 기쁨이 들어왔읍니다. 나는 풍성하고 훌륭한 선교 사업을 경험했으며 언제나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1837년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 초기 선교사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선언과 더불어 위대한 복천년에 대한 비젼과 커다란 신앙과 개인적인 용기를 선언하며 영국으로 가도록 부름을 준 것에 대하여 고맙게 느낍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한 땅 위에서 일하는 동안 내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이 사업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우리가 그의 교회 회원으로서 모두 그분의 이름 가운데 봉사하는 분에 대한 타는 듯한 큰 사랑이 스며들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있읍니다.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으로 회복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를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또 교회를 세운 지 불과 칠 년 후에 복음을 영국 섬나라로 가지고 가도록 하라는 계시가 주어지고 또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갑이나 전대도 없이 대양을 건너 현재까지 끊임없이 일 세기 반 동안 진전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원을 드리나이다. 그곳으로부터 이 사업이

구라파로 퍼졌으며 오늘날 세상 많은 지역으로 퍼졌읍니다.

1837년과 그 이후의 여러 해 동안 교회 기구가 쇠약해진 기간 영국에서 새로 개종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크게 강화되었읍니다. 그 섬 나라로부터 수천 명의 개종자가 나왔으며 그 가운데는 나부를 세우고 또 나중에 서부 계곡에 여러 지역 사회를 세우는 데 유용한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나는 장엄한 솔트레이크 성전과 태버내클과 기타 교회 건축물을 보면서 그들의 그 훌륭한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때가 한번도 없읍니다. 산의 계곡으로 여행하면서 수백 명이 죽었읍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과 또 살아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1837년 영국에서 복음의 그물을 던진 소수의 무리가 지녔던 그런 신앙과 일맥 상통하는 영속적인 신앙을 남겼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생활 방편에 따라 이 교회와 모든 회원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는 그 복천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수행할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신앙과 용기와 진리를 스스로 선언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그들의 선교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 나가자, 히버 시 킴볼과 그의 동반자 조셉 필딩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자 갈망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한번은, 선교사들은 "악수를 하기 위해 기다려 설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 토론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님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책임을 맡기셨읍니다. 그의 초기 사도들은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교회 회원과 마찬가지로 이 대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읍니다.

2. 복음은 교회가 설립된 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처음으로 영국의 섬 나라로 전파되었읍니다.

토론 유의 사항

1.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지구 전역을 통하여 계속해서 퍼져 나가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읍니까?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 필요가 있읍니까?

2.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과업이 너무 벅찬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앙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읍니까?

3. 고든 비 힝클리 청년이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간 첫 주에 낙담하고 있을 때 그의 부친이 "네 자신을 잊고 나아가 일해 다오."라고 권고하셨읍니다. 우리가 자신의 발전에 대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이 충고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읍니까?

"그 땅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사업"

대영 제국의 초기 선교 시절 하이라이트

183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된 이후로 그들은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알았다. 사도들은 정원회 선교에 관해 생각했지만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원회 형제들은 조금도 여유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1837년 6월에 주님께서는 예언자에게 "교회의 구원을 위해" 외국에 전파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시해 주셨다. 사도 중의 한 분인 히버 시 킴볼이 영국 선교부를 이끌도록 부름받았다.

6월 13일에 그는 올슨 하이드, 조셉 필딩(영국 출생) 및 윌라드 리차즈를 동반하고 커틀랜드를 떠났다. 뉴욕시에 도착해서 그들은 아이삭 러셀, 존 굿슨 및 존 스나이더라는 세 명의 캐나다 성도들과 합세했다. 이 일곱 명의 선교사들은 1837년 7월 20일 영국 리버풀에 도착했다.

리버풀에서부터 그들은 북쪽으로 여행하여 조셉 필딩의 친척들이 살고 있던 프레스톤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들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들은 국회 의원 선거 때에 도착했기 때문에 정당들이 각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 주장들 중의 하나는 "진리가 이긴다."라고 외치고 있었기에 선교사들은 이것을 앞으로 오게 될 좋은 일에 대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표적으로 삼았다.

진리가 이겼다는 것은 이들 최초의 말일성도 선교사들과 존 테일러, 올슨 프랫, 브리감 영 그리고 좀더 최근에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데이비드 비 헤이트 및 엠 러셀 밸러드를 포함하여 그 뒤를 따른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입증됐다.

1840년 4월에 프레스톤에서 있은 역사적인 모임에서 윌라드 리차즈는 십이 사도의 일원으로 성임되어 대영 제국에서 봉사하는 여덟번째 사도가 되었으며, 정원회 선임자인 브리감 영은 정원회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지지받고 성별되었다.

윌라드 리차즈는 영국에서 사도에 성임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여덟번째 사도가 되었다.

존 테일러

리버풀

존 테일러 장로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침례받도록 권고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존 테일러의 선교 사업 : 1840년

존 테일러는 윌포드 우드럽과 존 털리와 함께 그의 모국인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갔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처남인 조지 캐넌의 집으로 갔다.

조지는 집에 없었지만 그의 아내인 앤과 다섯 자녀가 미국에서 건너 온 방문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테일러 장로가 방문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며 떠날 때 앤 캐넌은 장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신다. 그분이 네 아버지의 집에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대로 그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조지와 앤은 테일러 장로가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침례를 받았다. 조지는 몰몬경을 두 번 읽은 후 "어떤 사악한 사람도 이와 같은 책을 쓸 수 없읍니다. 이 책은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명을 받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쓸 수 없읍니다."라고 선언했다.

캐넌의 네 자녀가 침례받을 연령이 되었지만 테일러 장로는 팔리 피 프렛

예언의 성취로써 토마스 테이트는 아일랜드에서 침례받은 최초의 말일성도 개종자였다.

아일랜드

장로로부터 "테일러 장로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읍니까? 지금 침례를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야 그들에게 침례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들을 침례주었다.

장남인 조지 큐 캐넌은 마침내 미국으로 이민하여 1860년에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교회에서 네 분의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했다.

아일랜드

테일러 장로는 선교 사업 초기에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말일성도 선교사였다. 리버풀과 근처 다른 도시에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의 어려운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을 피해 이민 온 아일랜드인이었다. 아일랜드인 개종자의 한 사람인 제임즈 맥거피는 테일러 장로에게 친구인 토마스 테이트를 소개했는데, 그는 리버풀에 방문 온 아일랜드 농부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 토론을 마친 후 테일러 장로는 테이트씨가 첫번째로 아일랜드에서 침례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테일러 장로 자신도 그 예언을 하며 놀랬는데 이는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테일러 장로는 후에 맥거피 형제와 함께 아일랜드에 있는 그 농부를 방문하러 갔다. 어디서나 선교사인 테일러 장로는 대중 집회를 인도하며 회복된 교회의 이야기를 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토마스 테이트의 집에서 하루밤을 보냈으며, 그는 테일러 장로가 다음 도시까지 걸어가는 데 동행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면서 테일러 장로는 회복된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근처 호수가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 테이트는 사도행전 8장 36절을 인용하여 말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두 사람은 호수로 들어가 토마스 테이트가 아일랜드에서 침례받은 첫번째 개종자가 됨으로써 테일러 장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아일 오브 맨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거의 정확한 중간 지점에 아일 오브 맨이란 곳이 있는데 테일러 장로가 1840년 9월에 그곳으로 갔다.

큰 홀을 빌려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역 목사들이 테일러 장로가 그릇된 내용을 인용하며, 문장의 일부를 삭제하여 말하고, 경전에 첨가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공개 토론에 동의했지만 목사들이 그들의 비난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 곧 입증되었다.

그릇된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테일러 장로는 세 가지 논평을 썼지만 그것을 인쇄할 비용이 없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도움을 간구한 결과 그가 필요했던 돈이 담긴 봉투를 받게 되었다. 그 봉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다. "일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을 가치가 있읍니다."

대영 제국에서의 성공적인 선교 사업을 정리하면서 테일러 장로는 "나는 결코 돈, 의복, 친구 및 가정 문제로 쩔쩔맨 적이 없었읍니다. 따라서 나는 주님을 증거했으며, 그분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는데, 이 간증은 요셉 스미스가 순교한 때인 카테지 감옥에서 다섯 발의 총탄을 맞은 시련의 때에 그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주머니 시계 때문에 총알이 심장에서 비껴나가 생명을 구했었다. 1877년에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 되었으며, 1880년에는 교회 대관장이 되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존 테일러 장로는 선교사 소책자 출판에 필요한 돈을 받았다.

아일 오브 맨

올슨 프랫

스코틀랜드

캐나다에서 교회에 입교했던 스코틀랜드인인 알랙산더 라이트와 사뮤엘 뮬리너는 그들의 모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스코틀랜드, 1840~41년

1835년에 부름받은 십이사도 중의 한 분인 올슨 프랫 장로는 1840년 4월에 영국에 도착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지명받고 알렉산더 라이트와 사뮤엘 뮬리너와 합세했다. 그들은 둘다 스코틀랜드 태생으로 따로따로 캐나다에 이민하여 거기서 모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수도인 에딘버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서 올슨 프랫 장로는 이백 명의 스코틀랜드인을 개종시킬 수 있도록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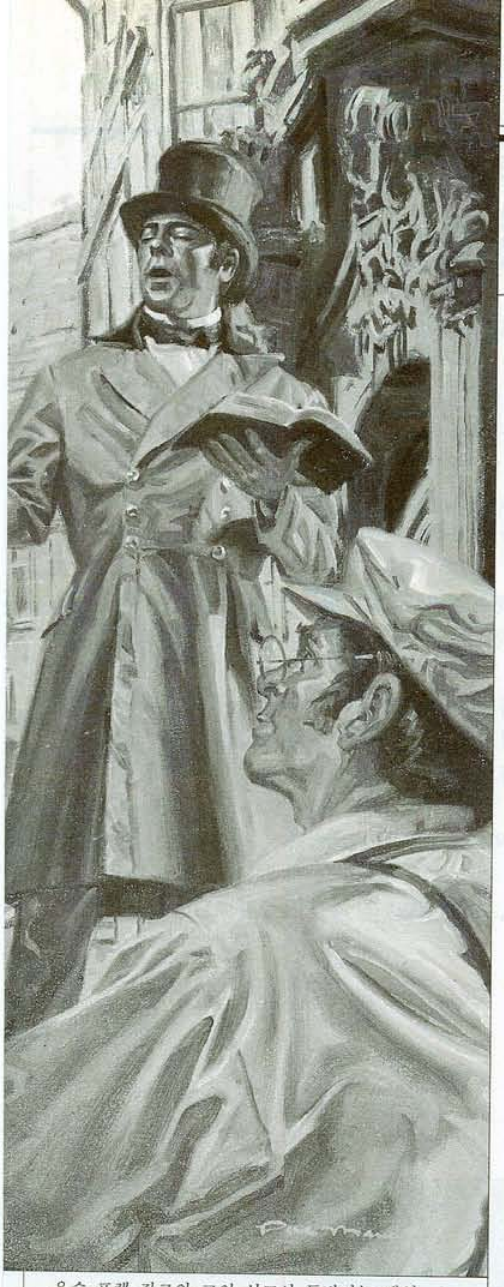
프랫은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교 사업을 도울 두 명의 선교사를 더 요청했다. 하이람 클라크와 루벤 헤들럭은 알렉산더 라이트와 함께 페이즐리에서 봉사하는 한편 프랫 장로와 사뮤엘 뮬리너는 수도인 에딘버러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두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을 하면서 거의 격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가 내다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선교 사업을 위해 스코틀랜드를 헌납하고, 주님께 200명의 개종자를 얻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매일 저녁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고 매 안식일에 일곱 차례씩 가르치는 등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여 23명을 교회에 개종시켰는데, 그중의 7명은 뮬리너 장로의 친척이었다.

프랫 장로는 거리에서의 전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몇 가지 놀라운 시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31페이지 짜리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서 첫번째 시현, 몰몬경 및 기본적인 교회 교리를 다루었다. 가장 먼저 나온 말일성도 믿음의 개요인 그 소책자는 마침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스위스어 및 웨일즈어로 번역되었으며 교회 선교사 서적의 고전이 되었다. 프랫 장로는 계속 열다섯 권의 소책자를 만들어 19세기 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했다.

프랫 장로가 1841년에 스코틀랜드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즈음에 200명에 대한 그의 간구가 응답되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일



올슨 프랫 장로와 그의 선교사 동반자는 매일 저녁 길거리에서 그리고 매 안식일에 일곱 번씩 전도했다.

것입니다."라고 그는 기록했다. 사실 수많은 스코틀랜드인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하여 유타에 정착했다.

프랫 장로는 1881년에 죽기 전까지 일곱 번 이상 대영 제국으로 돌아가 영국 및 유럽 선교부를 감리하고, 1864년에 마지막으로 에딘버러를 방문했다.

브리감 영

맨체스터

영국에서의 몰몬경

브리감 영은 1840년 4월에 영국 땅에 발을 디뎠다. 당시 선임이었던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사도들과 합류하였으며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되고 성별되었다. 그가 영국에 발을 디뎠을 때 영국 땅에는 1600명 이상의 말일 성도들이 있었다. 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 브리감 영 및 그와 함께 한 총관리 역원들이 영국 땅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에 그들을 환영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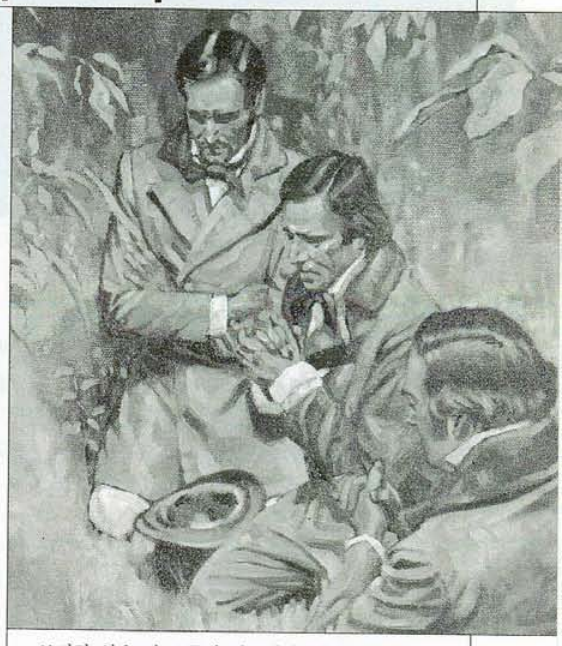
일주일이 지난 후 사도들은 최초의 영국 대회를 감리하였으며, 거기서 선교 사업 뿐만 아니라 출판에 관한 의욕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지지를 물었다. 그 대회에서 찬송가집의 발행과 충분한 수의 기부자가 있을 경우 월례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도록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달 후 브리감 영은 에언자에게 "사람들이 몰몬경을 간절히 원하고 있읍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요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영국에서 출판하도록 승인을 해주었지만 영국에서의 출판은 몰몬경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데에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었다. 또한 미국에서 들여올 경우 수입 관세가 너무 많아 대부분의 영국 성도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영 회장은 즉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윌포드 우드럽 장로와 윌라드 리차즈 장로와 함께 그는 기도로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찬송가집의 출판과 몰몬경 인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맨체스터로 가야 한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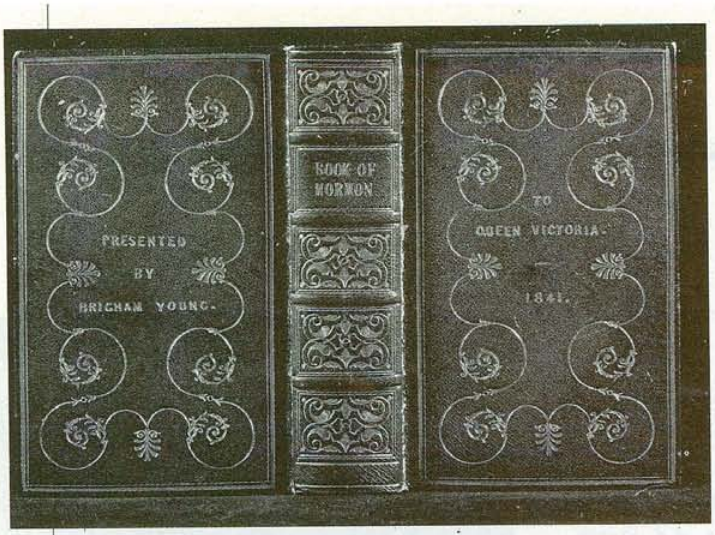
영 회장은 히버 시 킴볼 장로, 팔리 피 프랫 장로 및 존 테일러 장로와 함께 곧 일에 착수했다. 그들은 몰몬경 5,000부를 인쇄할 공장을 선정하기 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에 있는 모든 인쇄소를 방문했다.

마침내 1841년 2월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인쇄된 몰몬경 초판이 배부될 채비를 갖추었다. 브리감 영은 주요한 .



브리감 영은 기도 중에 영국에서 몰몬경의 인쇄를 알아보기 위해 맨체스터로 가도록 명을 받았다.

영국에서 몰몬경의 출판은 브리감 영이 성취해야 할 중요한 임무였다.



브리감 영이 1841년에 빅토리아 여왕에게 증정한 몰몬경(윈저 캐슬, 왕립 도서관 소장)

사업을 완수했으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 그는 많은 면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영국에서 교회의 관리 업무 채비를 갖추었고 필요한 많은 교회 서적 출판을 관리했으며, 영국 성도들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윌포드 우드럽

헤리퍼셔

1840년 헤리퍼셔에서의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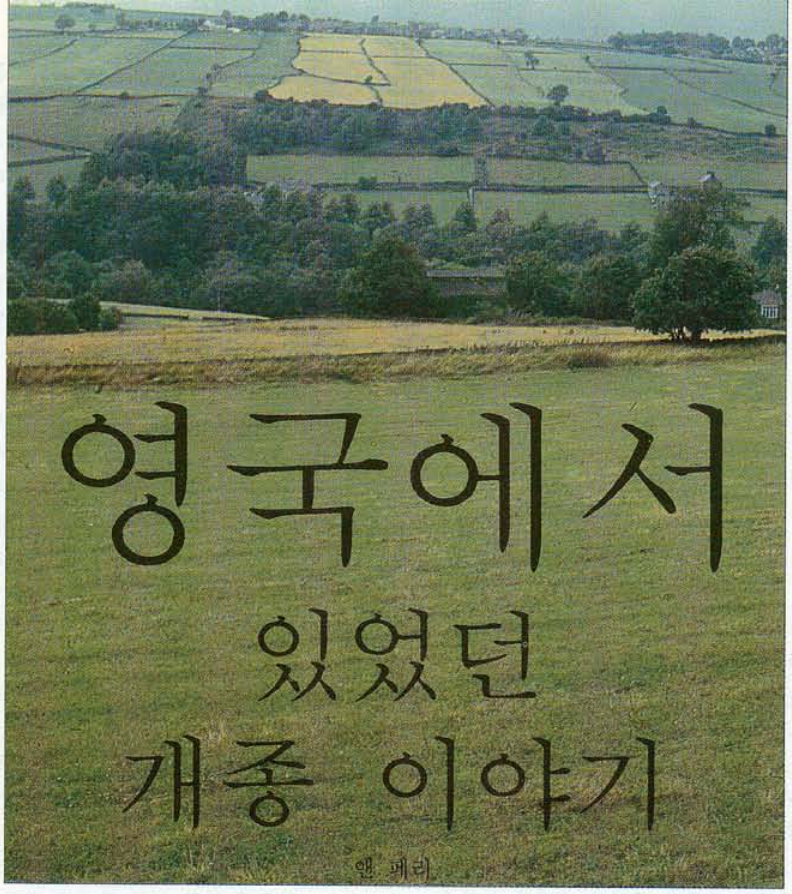
1839년에 사도에 성임되고 1880년에 교회 대관장이 된 윌포드 우드럽은 영국 중부 지방에서 성공적으로 봉사하고 있던 중 남부 헤리퍼셔로 가라는 영의 인도를 받았다. 그것은 교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교 여행 중의 하나였다.

우드럽 장로는 존 벤보우를 만났는데 그는 성공한 소작농이며, 감리교 수교파에서 갈라져 나온 모라비아교를 주도하는 인물이었다. 약 40명의 평신도 전도사들이 이끄는 약 600명의 모라비아교도들은 인간의 교리가 아닌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구하고 있었다.

우드럽 장로의 회복된 복음에 관한 메시지는 모라비아교의 관리자인 토마스 킹스톤이 침례받은 후 특히 잘 받아들여졌다. 이전 관리자의 뒤를 따라 약 320명이 다음 몇 주내에 교회에 가입했다. 이 당시 그 지역의 교회 회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두 대회(구역)를 준비해야만 했다.

윌포드 우드럽은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두 대회에 1,410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그중 300명을 그가 침례주었다고 보고할 수 있었다. □

1840년 3월에, 윌포드 우드럽은 농부 존 벤보우 씨를 만났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는 벤보우 농장의 연못에서 침례받은 수백 명의 개종자들을 도왔다. 침례를 베풀기 위해 연못을 깨끗이 치우는 윌포드 우드럽을 그린 이 그림은 리차드 머리의 작품이다.



영국에서 있었던 개종 이야기

앨 페리

이 위대한 사업의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관장단과 다른 총관리 역원이 참석한 지역 대회를 비롯하여 특별 기념 활동들이 영국 전지역에서 열렸다. 최근에 영국 성도들은 전세계 형제, 자매와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머물러 왔는데 성약에 대한 신앙과 힘은 영국 전역에서 모여든 이러한 간증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샬롯트 메이 곤

스코틀랜드 북단에서 떨어진 바람이 잦은 오크니섬에 샬로트 메이 곤이 살고 있다. 1919년 홀름에서 태어난 "롯티"는 농장에서 자라나 모든 농장 일을 배웠다.

2차 세계 대전 중 그녀는 영국 육군으로서 스코틀랜드, 영국 전역, 마침내는 이탈리아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병약한 오빠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농장으로 돌아왔다. 오빠가 죽은 후 그녀는 의사의 접수계원, 경리계원, 커크월이라는 작은 읍의 호텔 접수계원으로서 일했으며 또한 잠시 동안 지방 신문인 오카디언지를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나서 지방 의료 기관에 직장을 구하여 건강기록부를 관리하고 새로운 환자가 의사를 찾아서 등록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이제는 은퇴하여 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돌보며 커크월에서 살고 있다. *오카디언*지에 정기적으로 서평을 쓰고 있는 그녀는 지방란의 기사를 써 왔다.

롯티는 언제나 성경을 사랑하였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인간의 운명과 구원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1977년 어느 날 저녁 선교사가 방문했다. 베드로의 일화를 읽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선교사들은 각각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으며 그것은 롯티에게 있어서 진리를 향한 깨어남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해 10월에 침례받았다.

오카디언 사람들은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들이다. 롯티는 어려운 곤경에 처했고 불유쾌한 주목을 받아 왔으며 이제는 이웃으로부터 초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서 "난 아무 것도 후회하지 않아. 나의

마흔니 가족, 앉은 사람 : 손녀딸 엘리노어 모간과 딸 캐롤린 제이 모간과 함께 있는 에니드 마흔니. 뒷줄 왼쪽부터, 존 마흔니와 함께 한 제이 글렌 아론니와 레이놀드 제이 마흔니 및 사위 존 더블류 모간.

인생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과는 거리가 멀어졌어. 나는 매우 대단하게 여기던 것들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전에는 결코 꿈에서도 생각치 못했던 것들을 달성하는 것을 배웠어."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그녀는 복음 가운데 훌륭한 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오크니섬에서 세 명의 성도 즉 그녀 자신과 애니, 미나 프레트를 위하여 주일학교를 관리하고 가르친다. 그녀는 달콤하고 정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을 지휘하고 이끄는 것도 배웠다.

롯티는 애버든 스코틀랜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보우트를 타고 거칠고 폭풍이 잦은 바다를 건너 본토로 갔다. 그녀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하여 런던 성전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 더 깊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갖고 있던 그녀는 다른 성도들과의 모임을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때때로 큰 주일학교 반에 참석하여 토론을 듣고 질문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라고 그녀는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홀로 배우면서도 축복을 받았다. "내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십일조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 나는 1,2년이 지나서야 부정확하게 십일조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서기에게 가야만 했고 그에게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계산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렇게 하여 그 잘못을 고칠 수가 있었다. 나는 그 차액이 거액이 될까 두려워했지만 내가 서기실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내 머리 위에 한 손이 지그시 얹혀진 것처럼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참으로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고 완전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더니스 가족(왼쪽으로부터) : 아들 콜린, 데레사, 콜린, 고든, 다니엘

십일조를 내지 않은 금액은 그녀가 최근 받은 봉급의 30퍼센트에 달했지만 그녀는 즉석에서 십일조를 지불했다. "나는 결코 내가 느낀 행복감과 내 머리 위에 얹혀졌던 축복의 순간을 잊을 수 없읍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일랜드 공화국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천주교 가족인 콜린 던과 아내인 테레샤가 있었다. 선교사가 처음 그들을 방문했던 것은 그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며 테레샤의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였다. 친절하게도 테레샤는 그들을 들어오게 하였다. 콜린은 회상한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몰몬경을 받기도 했으나 우리의 신앙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읍니다." 테레샤는 회상한다. "나는 몰몬경을 없애 버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9개월 뒤에 이사했을 때 여전히 몰몬경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후 어느 날 창문을 내다 보다가 길거리에서 두 젊은 여자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문쪽으로 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 할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본 중 가장 상냥한 미소를 띠고 문계단에 서 있었읍니다.

"그들은 말일성도 선교사들이라고 나에게 말했고, 나는 '마침내 몰몬경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 책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으며, 그 날 저녁 다시 와도 되는지를 물었읍니다. 콜린은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토론을 들었읍니다." 그녀는 웃으며 "나는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마음먹었으며 그들을 당황시킬 온갖 종류의 질문들을 생각해 냈읍니다. 그러나 그 자매들은 그 질문에 모두 대답하였으며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왔읍니다."라고 말한다.

심한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랫 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이 그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설득하였지만 그녀는 1975년 11월 22일에 침례받았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심으로 되돌아갈 수 없읍니다."

콜린에게는 확신이 늦게 왔다. 선교사들은 콜린이 무릎을 꿇고, 복음에 관한 그의 불신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목표를 주었을 때 콜린은 그의 기도 가운데 몰몬경은 주님의 말씀이며 요셉 스미스는 참된 예언자인가를 솔직하게 물었다. 그는 마치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분명하고 뚜렷하게 마음가운데 응답을 느꼈다. "너는 왜 네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묻느냐?" 그는 완전히 마음을 결정하고 일어났다.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나는 그 사실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그는 시인했다.

똑같은 간증이 정신이 현재 메티르 티드필 웨일즈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인 존 마호니를 움직였다. 메티르에서 났지만 영국 북부지방에서 자라난 존은 청년이 될 때까지 메티르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1956년 1월 말일성도인 이니드 프라이스를 만났으며 그녀에게 곧 반하고 말았다. 그는 전에는 몰몬에 대하여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종교를 결코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교회 밖의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조용하게 대답했다. 몰론 그녀는 그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레시다 및 크리스 찰스

그는 그녀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선교사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6개월 만에 그는 교회가 진실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영적인 간증을 얻지 못했으므로 침례를 거부했다. 어느 날 메티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교회에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상한다. "엄청나게 강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완전히 나를 압도했읍니다. 나는 죽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때 교리와 성약 9편 8절이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올랐읍니다. '만약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는 1956년 12월 22일 침례를 받았고, 열여덟 살 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지부 서기가 되었다. 열아홉 살이 되고 육 개월이 지났을 때 그와 이니드는 결혼했다. 스무 살 때 그 당시 영국에서 최연소 지부장이 되었다. 그는 헌신적인 계보학자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와 메티르에 있는 계보 도서관의 활동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어니드 마호니는 1869년 유타로 이민간 초기 웨일즈 개종자인 모세 존스의 후손이다. 그의 가족은 그를 따르기로 되어 있었지만, 여러 해 연기한 뒤에는 메티르 티드필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으며 그러는 가운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1932년에 모세의 손녀딸이자 어니드의 어머니인 엘렌은 자신의 조상을 알지 못한 채 선교사 토론을 받아 들였고 침례받았다. 후에 가서야 그녀는 자신의 말일성도 배경을 알게 되었다.

어니드의 교회에서의 봉사는 일찍 시작되었다. 열다섯 살 때 그녀는 초등협회 회장이 되었다. 그때부터 지역 상호향상회 회장을 포함한 여러 부름을 받았다.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토퍼와 래쉬다 찰즈는 삶에 관한 의문에 대하여 응답을 찾으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영적인 준비를 해 왔다. 그들의 조상은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말일성도와는 다르다. 크리스는 1950년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양친 모두 키프러스계 그리스인이었다. 소년 때 그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던 것을 그만 두고 자신이 믿을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여러 교회를 찾아 보았으나 수 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그가 찾던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다.

렌과 리타 파로우 : 영국 의사당이 있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

그는 열일곱 살 때 래쉬다를 만났으며 그녀는 열네 살이었다. 그들은 5년 후에 결혼했다. 래쉬다의 아버지는 파키스탄 가죽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인이었다.

어려서 어린 남동생이 죽고 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자, 래쉬다는 신앙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가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간단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나는 어느 교회가 옳은가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읍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 주 후 자매 선교사가 그녀의 집을 두드렸고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생각났다. 곧 그녀는 마음 속에서 "이것이 진리요."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첫과를 배우기도 전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삼 일 후 선교사들은 찰즈 가족들에게 첫 과를 가르쳐 주었는데 크리스와 래쉬다는 둘째 과를 할 때까지 그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집안에 아름답고도 중요한 영을 가져 왔읍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에게서 그것을 느꼈으며 그들이 가자, 그것 또한 선교사들과 함께 가버린 것을 느꼈읍니다."라고 크리스는 말한다.

크리스와 래쉬다는 삼 주 후에 침례를 받았고 일 개월 이내에 크리스는 주일학교 회장이 되었다. 그는 고등 평의원으로서 계속 봉사하였고 그후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2보좌로 봉사했고 1982년에는 제1보좌가 되었다. 래쉬다는 수개의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맡아서 이행하였고, 특히 성전 준비 과정을 가르치는 것을 즐겨 했다.

래쉬다는 어린이를 사랑하였지만 결혼 후 수년이 되어도 그녀와 크리스는 자녀를 갖지 못했다. 많은 생각과 기도 끝에 그들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녀를 입양하려고 신청했다.

마침내 그들을 위한 여자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때를 래쉬다는 회상한다. "나는 이 어린 아기가 마치 우리 자신의 아기처럼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했읍니다.

"나는 방으로 가서 작은 어린 아기를 들어 안았읍니다. 그 순간 나는 어린 아기가 끊임없이 나를 뒤돌아 보며 내 눈을 응시하는 것 같은 특별한 기분을 느꼈읍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어린 아이의 성숙한 영이 나에게 '그것은 올바른 것이예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임을 깨달았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작은 어린 아기가 되었읍니다. 나는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크리스에게 아기를 넘겨 주었읍니다."

래쉬다는 그녀의 경험을 크리스와 나누기 위하여 몇 마디 말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이해했으며 그도 정확히 똑같은 느낌을 가졌읍니다."

크리스와 래쉬다는 그들의 지식과 사랑을 딸과 나누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고 싶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영국 북부 더럼 지방 페터리에서 살고 있는 렌과 리타 팔로우의 마음에도

1.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아더의 자리에서 올슨 프랫은 200명의 스코틀랜트 개종자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했다. 2. 영국에 지어진 첫번째 말일성도 예배당인 웨일즈의 래넬리 채플. 3. 당시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건물의 하나였던 리버풀 뮤직 홀은 매주 모임을 갖기 위해 존 테일러가 일 년간 전세를 내었다. 4. 영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5. 1955년에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공연한 태버내클 합창단. 6. 런던 성전. 7. 영국, 위윅셔, 솔리헐에 있는 교회 사무실. 8. 스코틀랜드, 인버네스 예배당. 9. 북아일랜드, 뉴타우내비 예배당. 10. 영국, 켄트, 메이드스톤의 메이드스톤 예배당. 11. 아일랜드, 더블린, 핑글라스 예배당.

강하였다.

렌은 1968년 교회에 들어와 곧 주일학교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 직책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음을 시인한다. 1982년 말 리타와 재혼할 때까지 그는 교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였다. 리타도 또한 재혼이었다.

마음이 다정하고 사교적이며 잘 웃고 친구를 잘 사귀는 렌은 현재 페터리 지부장단 및 장로 정원회의 제이 보좌이다. 그러나 그가 비활동 회원을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도록 활동화시키며, 형제애를 실천하는 것은 가정 복음 교사로서이다. "나는 삼십 명의 수련 장로를 활동화시킬 목표를 세워 놓고 있읍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리타는 다른 기독교 신앙 밑에서 자라났으며 그녀의 성장한 자녀들은 여전히 다른 교파에 속해 있다. 그녀의 첫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 그녀는 "아무런 영적 영향력이 없는 팔 년"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외로움을 느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했다. "내가 배워 온 신앙은 더 이상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읍니다. 나는 무엇인가 다른 것 즉 내가 그때까지 배운 것보다 좀더 복음에 깊은 의미가 있는 무엇이 있으리라고 확신했읍니다.

"선교사가 문 앞에 왔을 때, 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며, 나의 가족이 언짢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 한다면 절대로 선교사들을 놓칠 수 없다고 확신했읍니다."

그녀가 깊이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녀의 침례를 극구 반대했다. 리타는 몹시 아파서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병원에서 오 일간이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낫자마자 그녀는 1982년 9월 21일 침례받았다. 그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지도자적 위치에서 봉사했다. 겸손한 그녀는 값진 통찰력과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간증은 강하고도 확고하다. "어떠한 대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이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9장 62절을 인용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영국 북부 지방은 교회 역사가 비록 짧지만 활기에 차 있으며, 아일랜드 언덕의 회원들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잘 견디어 내고 있다. 남쪽 웨일즈 계곡에서는 교회의 역사도 깊고 강하며, 영국 남부 지방에서는 교회가 널리 퍼져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는 회원 수가 적어서 아주 멀리 드문드문 떨어져 있으나,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고 배도하지 않을 것이다.

롯티 곤의 간증은 많은 것을 대변해 준다. "선교사들이 철수했고 커크월에는 오직 우리 세 명의 성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매우 염려해 하곤 했읍니다. 우리는 충분히 힘이 강한가? 그때 나는 마음 속에 매우 분명한 음성을 들었읍니다. '나는 주니라. 나는 악마보다 강하다. 아무 것도 나의 교회를 물리칠 수 없도다.'" □

잘 알려진 괴기 소설가인 앤 페리는 노르위치 잉글랜드 스테이크의 회원으로 그녀는 그곳의 공보 책임자이다.

8 10

방문 교육 메시지

축복과 책임

현세계를 사는 말일성도 여성

목적 : 오늘날 교회 여성이 되는 것의 축복됨을 인식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는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성이 되면 다른 시대에는 들어 본 적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과 또 신성한 성격의 여러 가지 책임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축복과 책임 가운데는 세상적 및 영적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자녀를 키우는 등의 기회가 있다.

지식

에델 스미스 매드슨은 호기심이 많은 소녀로서 농촌 생활로 인하여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독서의 기쁨을 발견하여 고학으로 대학을 마쳤다. 나중에는 그녀의 자녀들도 의학과 과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시력이 침침해졌을 때는 레코드와 테이프를 들으며 계속해서 배웠다. 그의 경전을 인용하는 능력은 놀랄 만했다.

봉사

우리가 봉사할 기회는 많이 있으며 모든 작은 노력이 다 중요하다. 헝클리 부대장관은 여성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본능적인 성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다. 딘 엘 라슨 장로는 딸과 함께 어떤 가게에 갔을 때 옆에 있던 고객 한 사람이 도자기 조각품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슨 장로는 "나는 본능적으로 물러섰읍니다. 내 딸은 역시 본능적으로 그 할머니의 옆으로 다가가서 그 할머니를 팔로 안아 드리고 귓속말로 위로해 드린 다음 몸을 구부려 그 도자기 조각품의 부스러기를 줍기 시작했읍니다."라고 회고한다. (1984년 10월, 대회 보고)

가족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태초부터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에게 영원한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읍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신앙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하여 어머니의 생생한 모범으로부터 의를 선택하는 것을 배우는 안정과 사랑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1981년 10월, 대회 보고)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교성 68 : 28)할 시절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신성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비록 모든 여성이 이 필멸의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든 어린이를 양육할 수 있다. 어떤 만년의 독신 자매는 자녀가 많은 젊은 어머니를 돕기 위하여 퇴근 길에 그 집에 들렀다. 또 교회에서 그 가족 옆에 앉아서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일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가 계속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토의한다.

2. 교리와 성약 58편 27~28절을 읽는다. 성령에 민감하게 유의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와드와 지부와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어떻게 증가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토의한다. □

더 상세한 내용은 가정의 밤 자료집, 20, 21, 25과를 참조한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보다 더 "훌륭한 길"을 추구함

헨리 비 아이어링 감독
관리 감독단 제일보좌

내방객이 있을 때 십이사도 평의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앞으로 나와 손님을 맞는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하는 시간이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준다.

맥스웰 장로가 그 방문자에게 또 그가 말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상대의 의중을 이해하고 느낌마저도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오랜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집중이라는 말이 그의 한 가지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는 렌즈가 광선을 집중시키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부분에 그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읍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의 타고난 품성과 능력 나아가서는 그의 탁월한 인품을 적절하게 묘사한 말이다.

수의사가 될 생각을 했음

클래렌스 맥스웰과 엠마 애쉬 맥스웰의 여섯 자녀의 맏아들로 1926년 7월 6일에 태어난 닐은 당시 농장 지대였던 솔트레이크의 한 모퉁이에서 자라났다. 그의 취미에는 스포츠와 동물(한때는 수의사가 될 것도 생각했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문장 능력은 고등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탁월했으나 어떤 현명한 교사로부터 좀더 잘 하라는 권고를 받은 후 자신의 문필력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닐은 1944년에 고등 학교를 마치고 곧 태평양에서 미군 병역 의무를 필하고 있었다. 그의 문필력은 훈장을 받게 될 군인을 위한 표창장을 준비하거나 아들이 전사한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일에 유용하게 씌었다. 그런 편지를 쓰는 경험은 젊은 군인에

대한 사랑에 관한 교훈을 얻게 해주었다.

그는 제대한 후 동부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그는 감독이 접견하자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감독에게 가서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받고 싶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군복무 시절에 저축한 돈으로 선교사 비용을 충당했다. 그가 새로운 교수법 계획을 준비할 때 그의 문필력이 다시 활용되었는데 그 계획은 그의 선교부와 다른 여러 선교부에서 사용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끝낸 후 유타 대학에 입학하여 삼 년도 안되어 정치학 분야의 학위를 마쳤다.

"모두 그를 존경했읍니다."

바로 이 대학에서 콜린 힝클리가 그를 만났다. 콜린은 "그에 대한 모든 사람의 특별한 느낌은 그들이 그를 존경한다는 사실이었읍니다."라고 말한다. 콜린은 졸업하고 아리조나로 가 학교 교단에 섰으나 다음 해 여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1950년 11월 22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들은 미국의 수도 와싱턴으로 이사했다. 닐은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유타주 상원 의원인 웰리스 에프 베넷트의 참모로서 일했다. 그 시간은 그에게는 성장의 시기였으며 점점 더 복음을 세상을 볼 때 쓰는 렌즈로 사용하게 된 시기였다. 그때의 경험은 그후 유타 대학에서 정치학 강사로서 가르치고 집필하는 골격을 형성시켜 주었다.

그는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한다. "와싱턴에 살던 기간에 나는 권능이 간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 37절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권능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와싱턴에 있었던 기간은 권능의 사용과 남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읍니다."

닐 맥스웰 청년의 생애에서 그 시점에서는 정치 분야의 진로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는 정부의 권력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수많은 사회적인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경험을 쌓는 가운데 그의 견해가 바뀌었다. 그는 각 개인이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음에 인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인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법은 도움은 되지만 정말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해결합니다."

새로운 장의 시작

그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유타주에서 지역 사회 및 학계에서 봉사한 후 기관보다는 사람 개개인에게 보다 더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는 교회, 지역 사회, 학계에서 봉사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자신의 생애가 좀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아이러니칼하게도 그가 1950년대 중반에 베넷트 상원 의원의 재선 운동을 하기 위하여 유타주로 돌아온 것이 정치에서 손을 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유타 대학에서 공보 학과를 신설하여 자리가 난다는 것을 알았고 부인인 콜린이 맥스웰 장로에게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왜? 라고 주저했지만

그녀의 논리는 남편이 대학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더 많이 찾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채용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나중에 총장 보좌, 학생감, 마침내 부총장이 되었다.

그는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 정치학을 가르쳤으며 그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표창을 받았다. 그중에는 학생들로부터 최고 인기 강사로 선정된 것도 포함된다. 그가 젊은이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덕택에 오늘날 수백 명의 젊은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학계에서의 경험은 와싱턴에서 품기 시작한 느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맥스웰 장로는 "어떤 면에서 그 대학은 복음의 여러 가지 개념이 해답일 뿐 아니라 면밀히 조사해 보아도 확연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읍니다."라고 회상한다. 그는 예를 들어 모사이야서 29장에 있는 정치적인 개념은 실질적으로 강력한 적용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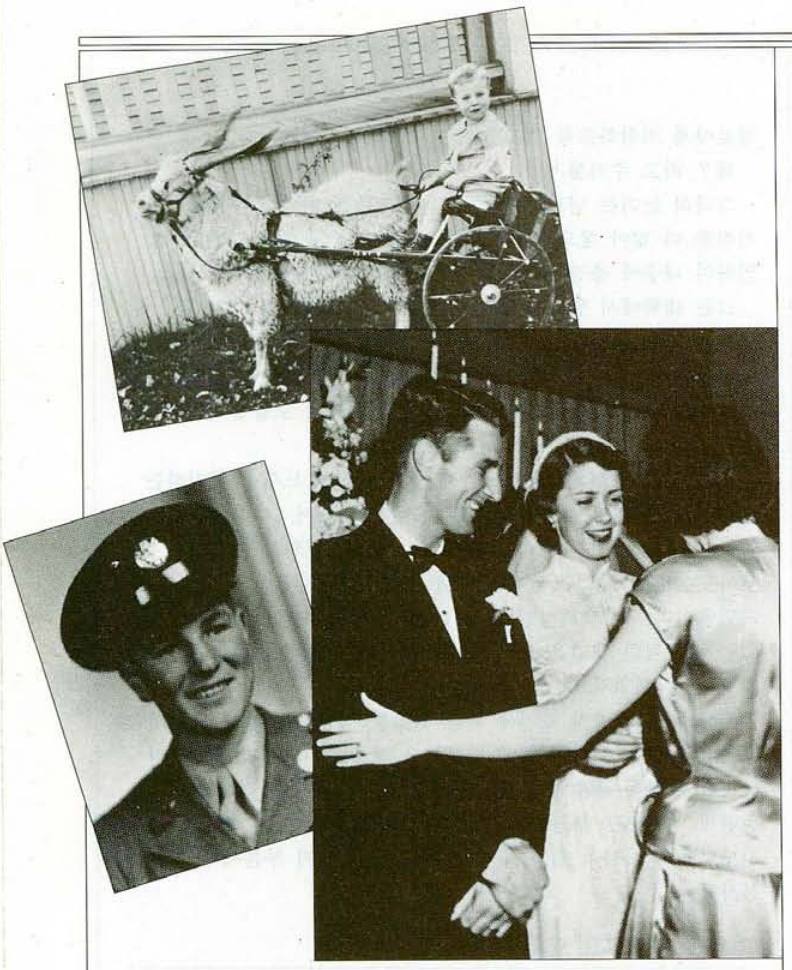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에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발휘하는 능력 가운데 일부분은 해롤드 비 리 대관장과의 접촉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을지 모른다. 닐 맥스웰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지역 대표로서 또 교회 지도자들과 가까이 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름에서 봉사했다.

"진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리 대관장님으로부터 이 교회는 진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유용하거나 참되거나 칭찬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서 주춤거릴 필요가 없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리 대관장과 함께 어떤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방문했던 때를 회고하고 있다. 그 회원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리 대관장은 그 회원으로부터 그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었으며 동시에 그 사람에게 그의 생애에서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랑으로 가르쳤다.

1970년에 맥스웰 형제는 유타 대학을 떠나 교회 교육 기구 책임자의 직책을 맡았다. 사 년 후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았으며 1976년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회장단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198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았다.

맥스웰 장로를 십이사도 보조로 그 다음 십이사도로 부름을 준 사람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었다. 첫 부름은 맥스웰 가족과 같은 와드 회원이었던 킴볼 대관장이 맥스웰 장로가 고된 하루 일을 끝내고 쉬고 있던 어느 날 밤 격식없이 그의 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 부름은 당시 그 정원회에 공석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맥스웰 장로는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대관장단



네 살 때의 어린 날: 1944년의 날 맥스웰은 미국 보병의 군인이었다. 1950년 11월 22일 결혼식 날의 날과 콜린 힝클리 맥스웰

제삼보좌로 부름받는 것과 동시에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그 부름은 맥스웰 장로가 수술을 받고 병원의 회복실에 있을 때 주어졌다. 그는 처음에는 킴볼 대관장이 병원으로 찾아 왔을 때 단순히 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일환으로서 문병온 것으로 생각했다.

안목을 갖추고

맥스웰 장로는 "킴볼 대관장님이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성역의 기독교적인 차원은" 매우 깊고 감동적인 것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분만큼 충분히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조그만 행동이나마 그분의 모범 때문입니다."

맥스웰 장로는 또 교회의 현재 대관장과 친분을 맺은 것을 통하여 봉사에 대한 안목도 갖게 되었다.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한결같은 지침, 즉 '무엇이 왕국에 가장 유익한가?"라는 것이 그분의 다스림의 가장 큰 특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적용할 필요가 있는 기준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비극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애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맥스웰 장로는 총관리 역원들 가운데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하듯이 여러 사람 개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은밀한 성역을 행하고 있다. 가까운 친지들은 그의 마음 속에 그의 개인적인 도움이나 격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긴, 비밀 명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사랑에는 필요 사항이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한 존재이며 그들이 공헌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은사도 포함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감한 배려

체조 참피언인 다이안 엘링슨은 몇 년 전 연습 중 큰 사고를 당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엘링슨 자매는 계속해서 생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면서 언제나 맥스웰 장로로부터 격려와 용기를 얻었다. 엘링슨 자매는 "저는 제가 그가 손길을 뻗쳐 감동케 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맥스웰 장로는 아들이 브리감 영 대학교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대를 졸업할 때 맨 먼저 데이빗 실베스터라는 법대 학생을 찾았다. 데이빗이 학위를 받을 때 교직원 및 다른 졸업생들이 모두 그에게 열렬한 박수 갈채를 보내 주었다. 그는 마지막 학년 기간에 세 번이나 암 수술을 받고 화학 요법 치료를 받으면서도 수업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견디어 낸 것이다. 맥스웰 장로는 은밀히 데이빗을 방문하고 그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그 젊은이가 죽기 전에 튼튼한 우정을 쌓았다.

맥스웰 장로의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대한 민감한 배려는 그의 가족에 대한 배려에서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맥스웰 집안의 네 자녀 가운데 둘째인 코리(누나 베키와 동생 낸시와 제인의 사이에 태어났음)는 한번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시기에 적절한 전화를 받았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 대화에는 맥스웰 장로가 그 특정한 시간에 아들에게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코리는 자신이 만 여덟 내지 아홉 살이 되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부친께서 저에게 부모로서 자신의 노력 특히 훈육 문제에 관하여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부친은 '내가 너무 엄하다고 생각하니?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으셨읍니다. 저는 부친에게 높은 점수를 드렸읍니다. 저는 당시에 그 어린 연령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관심이 있고 또 알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가족이 늘 웃도록

맥스웰 장로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년 전 유타주 법률 협회 회원들에게 연설한 내용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사무실 회의 탁자에서 점수를 따는 것은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딸 낸시 맥스웰 앤더슨은 맥스웰 집안의 저녁 식사 대화는 여흥이 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부친의 재빠른 기지와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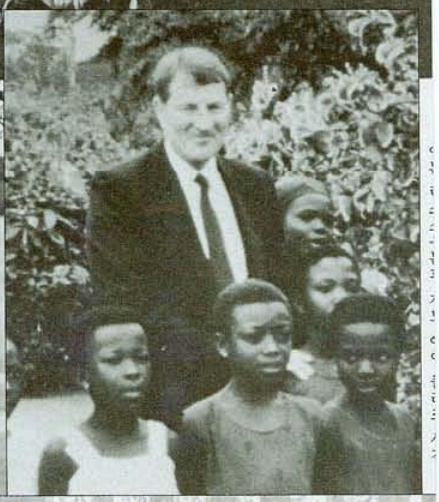
"그리스도는 그의 인간됨과 그가 알고 있는 것, 그가 달성한 것, 그가 경험한 모든 면에서 전혀 비견될 수 없는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나 감격스럽게도, 그는 우리를 그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닐 에이 맥스웰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부셋 사진, 사진 소장

늘 가족이 웃게 만들곤 했다.

그러나 그가 좋아한 가족 활동 가운데 한 가지는 진지한 복음 토론이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네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들과 함께 경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기회를 너무나 즐겼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들과 함께 한 맥스웰 장로 부부, 닐 맥스웰 장로는 손자녀들과의 게임을 즐긴다. 서 아프리카, 가나에서의 맥스웰 장로, 그곳에서 그는 1985년에 그 지역에서의 첫번째 예배당을 헌납했다. 맥스웰 장로 부처.

서로의 의견 교환이 계속되고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이다. 가족이 함께 모이면 그는 "우리가 언제 복음 토론을 할 수 있나?" 하고 묻는다. 막내딸인 제인 맥스웰 샌더즈는 최근에 친척이 다 모였을 때 복음 토론이 그 모임의 절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낸시는 부친이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이래로 이런 대화에 "영적인 호소력을 느끼고 있으며 부친은 우리가 그의 간증에 대하여 좀더 알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한다.

대단한 사랑과 신뢰

그는 자녀가 아직 어릴 때 자신의 느낌을 그들에게 표현하기 위한 좀더 친밀한 방법을 자주 찾아냈다. 기념할 만한 일대일의 대화가 여러 번 있었다. 또 때때로 편지도 썼다. 그런 편지는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써 각 자녀 개인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적었으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장점을 다루고 있었다. 맥스웰 집안의 장녀인 베키 맥스웰 알랜더는 그런 편지를 십대 기간에 그의 사랑을 특별히 잘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징표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편지는 그녀가 결혼한 후에도 꾸준히 왔다.

언제나 그의 큰 사랑과 신뢰를 느꼈다. 제인은 "저는 부친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도록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맥스웰 장로는 어떤 특별한 취미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좋아하는 레크레이션이 한 가지 있다. 딸 낸시는 "부친은 테니스를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부친의 에너지의 매우 실질적인 출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맥스웰 장로는 아들과 사위에게 자신의 육십 환갑이 되기 전에 테니스에서 자신을 꺾어 보라고 늘 도전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그것을 해내지는 못했다. 그는 대단한 승부사이다. 코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한번 부친에게 이겼읍니다. 그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가능한 최선을 기울여 경기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붓을 멈추는 일이 없고

그는 집필에도 똑같이 힘을 쏟는다. 그는 신문으로부터 역사, 전기, 철학 서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책을 읽는다. 그것이 그의 집필의 열쇠가 된다. "그는 독서하고 그 사상을 흡수하고 그 사상을 정리하여 왕국에 공헌합니다."라고 그의 친구들은 말한다.

콜린 맥스웰은 요즈음 남편이 집필의 손을 쉬는 일이 한번도 없다고 말한다. "대부분 그는 여행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작은 노트를 갖고 다닙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적습니다." 그는 열일곱 권의 책을 썼으며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사와 말씀과 다른 재료를 썼다.

맨 처음 그에게 책을 쓰도록 격려한 사람은 그의 부인이었다. 부인은 수많은 다른 면에서도 특히 그의 부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도왔기 때문에 낸시는 "아빠는 엄마가 없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제인은 덧붙여서 예를 들면 맥스웰 장로가 교회 직책상 오랫동안 또는 곤란한 시기에 집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맥스웰 자매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편을 생각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의 짐에 사랑의 글을 적은 쪽지나 남편이 좋아하는 과자 등을 넣어 준다.

맥스웰 장로는 부인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아내의 철저한 경전 연구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한다. 그는 부인과의 복음 토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그는 부인이 자신보다 "좀더 완전한" 기독교인이라고 설명한다. 부인은 봉사하려는 열의가 높지만 특별히 인정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감미로운 경험"

한편 부인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와 가까이 지낸 것과 또 그의 복음 지식과 구세주에 대한 사랑이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감미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맥스웰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상당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려는 열의를 보아 왔읍니다. 또 주님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그가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아 왔읍니다. 그런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읍니다.

"그이가 '초인적인' 성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나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과 복음과 왕국의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는 그분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더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맥스웰 장로는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후 첫 연차 대회에서 구세주에 대한 강한 간증을 전했다.

"나는 그분이 *현재의 그분으로서*,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 그분이 *성취하신 것*, 그가 *경험하신 것*에 있어서 전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요 15 : 15 참조)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더욱 더 사모할 수 있읍니다. 이 혹성에 거주했던 유일한 완전한 분으로서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이사야 46 : 9 참조)

"그러므로 나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내 생활이 완전히 특별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의 특별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떨리는 영혼 가운데서 인식하며 어디든지 보내시는 대로 갈 것을 겸손하게 약속드립니다."(1981년 10월, 연차 대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특별한 부름과 권세를 느껴 왔다.

맥스웰 장로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밝혀 주고 그들이 더 많이 공헌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집중시키는 동안에 그 빛에 의하여 그 자신이 밝게 비쳐지고 변화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사탄의 올가미는 결혼 생활과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를 끊어 버릴 수 있으나, 아담과 이브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신앙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

(25페이지에 계속)

결혼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의 견해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실제로 올바르게 인정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도 아마도 그것이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특별한 이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지상에 놓여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육체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읍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상에 오기 전에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읍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 : 18)

그래서 이브가 창조되고 아담의 반려자이자 부인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까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게 되어 있었읍니다.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아담이 이브를 보았을 때 즉 자신에게 부인으로 인봉된 그 영광스러운 지체를 보았을 때 그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그녀가 상징적으로 그의 심장 바로 옆에 있는 갈비뼈로부터 취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창 2 : 23) 그들의 그러한 결혼에 대해서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 : 6)

교회 지도자들이 결혼에 대하여 우려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특히 성전 결혼과 인봉에 관하여 우려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회원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 거룩하고 영원한 반차에 아주 경박한 마음으로 들어 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이 다른 형태의 결혼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 결혼에 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전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신권 권능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룩한 의식입니다. 성전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과 미움의 차이

수많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 결혼 성약의 신성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만약에 이 결혼이 잘 되어 나가지 않으면 바꿀 수 있어, 만약에 내 반려자에게 싫증이 나면 이 인봉을 취소하고 다른 반려자와 다시 시도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해의 왕국의 결혼에 임한다면 처음에 그런 관계의 기초가 되었던 사랑이 어떤 형태의 것이었든지 그 사랑은 조만간에 좋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증오심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에서 어떻게 사랑이 죽어갑니까? 여호와와 루시퍼의 태도와 행동에서 큰 차이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사랑과 미움의 차이를 잘 보여 주고 있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진실된 사랑에 대해 보다 더 큰 식견을 갖고 계셨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또 그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셨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인류의 성장과 발전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자기 자신이 미래에 받게 될 필멸의 생명을 희생으로 바치겠다고 제안하셨읍니다.

반면에 루시퍼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했읍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기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는 교만과 헛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했읍니다. 증오심은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분명히 사탄의 이기심이 증오심으로 발전했읍니다.

복음을 믿음

이 이기심에 찬 계획은 오늘날 루시퍼가 전파하고 있고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탄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의 함정과 덫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잡아 찢고 부수고 더럽히고 또 모든 것을 추악하게 만드는 반대의 복음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이 사탄의 교리는 분쟁과 분열과 악함에 의하여 가족이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사랑과 증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슬픔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구혼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믿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 오겠읍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전 결혼의 중요성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태생이 거룩하며 하나님은 실재하시고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두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부음 받으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읍니다. 그분의 생애는 희생적인 헌신의 생애였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활하는 생애는 또한 구혼과 결혼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희생적인 봉사가 포함됩니다.

결혼의 한 가지 중요한 질문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현명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는 합당하게, 알 수 있는 한 철저하게 상대방을 알아 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중요한 성약을 성급하게 맺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불과 잠깐만 알고 지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우선 시험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지? 바꾸어 말해서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신뢰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반려자와 또한 그와 그의 가족의 역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과 이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겪어 왔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정직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결혼을 통해서 교화시키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러한 변화는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 완전해서 결혼한 후에 그런 옛날의 나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학대라는 것도 사람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학대받으면서 자란 어린이가 커서 결혼하면 구세주의 병고침의 영향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자기 자녀를 육체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또 다른 종류의 학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친 상간 관계라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자란 어린이는 나중에 그 자신이 결혼할 때 근친 상간 행동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모험을 할 준비를 갖춤

결혼에 있어서 불행하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결혼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 어린이가 생길 때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결혼 반려자 두 사람의 어깨에 올려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압력에 직면할 때 젊은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고백한 사랑, 육체적인 매력, 달콤한 여러 가지 생각이 먹고 살기에 필요한 수입을 제공해 주거나 필요한 음식이나 비상시에 대처할 자원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모험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럽고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지 못하고 적절한 준비가 결여되어 있다면 결혼은 재난이 될 수 있읍니다.

내가 결렬된 결혼의 여러 가지 실제 사례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관찰한 한 가지 사실은 이혼이 결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붕괴될 때 오는 가슴 아픈 일은 현대 세계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혼이 자녀에게 안겨 주는 마음의 상처의 영향은 거의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너무나 적대적이 되어서 적의와 불행한 마음을 품고 어른이 되는 일이 흔히 있읍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 성공적인 결혼을 할 가능성은 그들의 부모의 결혼에서 목격한 어려움과 싸움과 마음 아팠던 일에 대한 추억에 의하여 지장을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어느 편도 "승리"하지 못함

이혼은 또 다른 문제도 만들어 냅니다. 금전적인 처리에 의하여 한 가족을 돌보기에 적절한 경우는 별로 없으며 이혼한 부인은 자기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운 것을 알게 될 때가 흔히 있읍니다. 그러면 곧 반감과 슬픔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혼에 이르는 경우 어느 측도 정말로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난 증오심과 반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이 결혼 상담자의 가장 큰 과제일 경우가 흔히 있읍니다. 해결책은 거의 언제나 회개와 용서입니다. 반감과 분노는 비극적인 행동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나는 자주 교리와 성약 64편 9절을 인용합니다.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우리는 서로 친절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 : 14~15)

친절은 사랑을 되살릴 수 있음

우리는 언제 사람이 증오심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친절과 겸손이 정말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겠읍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배우자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나 죽음이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가출함으로써 홀몸이 된 사람들에게 몇 가지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에 빠지거나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죽은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과 결혼할지 또한 성약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받아들여 줄까 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대단히 어려운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끝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에서 마땅히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을 갖고 참는다면 아담과 이브가 필멸의 상태에서 시작한 그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읍니다. □

이것은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행한 말씀에서 편집한 부분임

"내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영은 나에게 그는 천국 전쟁에서 위대한 영에 속했음을 분명하게 알려 주었다."

칼로스 디안젤로 : "내가 노력하면

헥터 에이치 페루조티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우선 순종하겠다는 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소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나쁜 행동의 결과이거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결과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모인 곁을 지나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면 즉시 그 말을 하는 칼로스 디안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그는 내성적인 성격을 타고 났지만 아르헨티나의 마델플라타 스테이크에서 모임이나 역원회에서 친구와 회원에게 둘러싸이는 경우가 많다.

그는 서른 두 살밖에 안된 사람이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덕성,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칼로스 디안젤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육체적인 암흑 속에서 이런 간증을 발전시켰다. 그는 날 때부터 녹내장이 있었고 마침내 열 살 때 눈이 멀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실명의 상태를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태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그들이 자녀에게서 어떤 것을 바라는가 또 자녀가 성장하고 뒤에 버려지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칼로스의 부모는 두 사람 다 귀가 먼 벙어리이기 때문에 칼로스의 숙모가 도와서 그를 의사에게 데려 갔다. 칼로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숙모님이 부모님보다 형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읍니다. 숙모님은 또 맹인을 위한 특수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여행할 때에도 도와 주셨읍니다."

칼로스로서는 그 기숙사 생활은 너무 괴로왔다. 그는 따뜻한

축복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가정을 떠나 낯익은 음성이나 환경이 아닌 냉냉한 기숙사로 이사해야 하는 것이 괴로왔다. 그는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듬해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칼로스는 언젠가는 자신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날을 꿈꾸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주변에서 또 자기 주변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알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제한도 극복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칼로스는 학교를 떠나자마자 일자리를 찾았다. 처음에는 어떤 신용 회사에서 편지를 배달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선전 회사의 배달부로 그 다음에는 도자기 회사에서 진흙을 반죽하는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의 수입으로 라디오를 비롯하여 몇 가지 조그마한 물건을 자신이 쓰기 위하여 구입했다. 또 부모님이 짓고 있는 집에서 쓸 조그만 온수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것을 사기 위하여 제가 모든 돈을 모두 다 투자했읍니다." 이것은 칼로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성취였다.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읍니다. 가족이 모두 쓸 따뜻한 물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제가 매우 훌륭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었고 또 자신이 쓸모있고 동등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읍니다."

이러한 느낌은 다른 면에서도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새로 자신감을 얻고 중단했던 공부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삼촌과 숙모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의 작은 가두 판매대를 만들어 과자, 사탕, 담배 등을 팔았다.

이 기간에 칼로스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 왔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읍니다. 일을 했으며 가두 판매대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발전시킬 계획을 했읍니다. 어쩌면 어떤 소녀를 만나 여자 친구가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했으나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페드로루로애버뉴에 있는 그의 과자 가두 판매대를 지키다가 그의 관심을 끄는 라디오 광고를 듣게 되었다. 그 라디오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역 대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장로, 멜기세덱 등의 생소한 말을 했다. 또 예언자에 대하여 이야기 했는데 그 말씀이 "저의 관심을 끌었읍니다."라고 했다.

몇 달 후 베투지 가족이 디안젤로 이웃으로 이사왔다. 베투지 집안의 딸들이 곧 칼로스와 동생의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칼로스의 동생이 이렇게 물었다. "형! 형은 베투지 가족이 몰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로잔나와 파비안나가 칼로스의 가게에 와서 말을 건넸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몰몬이 뭔지 좀 이야기해 줘."

로잔나가 칼로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칼로스는 이렇게 말하며 웃는다. "그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분이라고 말했을 때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것같은 느낌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했읍니다. '내가 좀더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 가도 괜찮니?'

"1979년 초 어느 일요일에 처음으로 그곳에 있는 와드에 갔읍니다. 그날은 선교사 주일이었읍니다. 어떤 형제가 요셉 스미스의 첫 시현에 대하여 말씀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족 생활에 대하여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모두 제가 예상했던 것과 상당히 달랐으나 호감이 갔읍니다."

그 첫 방문 이래 칼로스 디안젤로는 모놀리토 와드 참석을 중단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몇 주 후 칼로스는 간증회에서 처음으로 간증했다. 그는 그때까지 선교사 토론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자기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새로운 영감을 표현하고 싶은 느낌을 받았다. "저는 비록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교회에 오면 대단히 훌륭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이야기했읍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저를 받아들여 준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제가 들은 것이 참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이야기했읍니다."

그는 그 다음 주 와드 선교 책임자인 다니엘 로드리게즈로부터 첫 토론을 배웠다. 그는 마지막 토론을 배우고 한 달이 지난 다음 침례받았다. 칼로스가 침례받고 몇 달 후 모놀리토 와드 감독으로 부름받은 다니엘 로드리게즈는 이렇게 회상한다. "한번은 칼로스에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는 동안 그가 별로 몸이 좋지 않은 적이 있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축복을 주기로 했읍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께서 그가 천국 전쟁에서 굉장히 위대한 영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셨읍니다. 나는 그것을 느낀 대로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읍니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칼로스가 이 생에서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저는 언제나 그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그가 보조로 봉사해 줄 것을 요청했읍니다." 칼로스는 멜기세덱 신권으로 승진할 때 임시 선교 책임자로 부름받았고 나중에 칠십인으로 부름받았다. 동시에 그는 집행 서기로 봉사하고 있었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이렇게 회상한다. "칼로스는 약 사 년 동안에 집회에 빠진 것은 겨우 두세 번밖에 안될 정도로 대단히 열성적이었으며 그 두세 번 빠진 것도 단지 몸이 아팠기 때문이었읍니다." 칼로스는 점자 장비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완벽하게 처리했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거나 철하지 않고 버려 둔 적이 없읍니다."

칼로스는 교회에 들어온 지 몇 년 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마쳤다. 그리고는 몇몇 교회 회원의 도움을 받아 라플라타시에서 맹인 도서관 사서로 한동안 일했다. 지금 그는 대학교 역사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필생의 꿈을 추구하고 있다.

이전에 로드리게즈 감독의 보좌로 일했던 로베르토 디 플라비아 형제는 일상적으로 칼로스의 공부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칼로스와 만나 교재를 읽어 준다. 그러면 칼로스는 놀랄 만큼 쉽게 들은 것은 다 암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매달 여러 번 칼로스가 집에서 공부하도록 교재 내용을 카세트에 녹음해 준다.

칼로스는 1986년 3월 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서 자기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또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열심히 노력하는 타고 난 능력이 매일매일 더 커지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결단력은 그의 큰 간증으로부터 나오며 그는 그 간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칠십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큰 책임을 받았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고 언제나 그분에 대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구세주와 매우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하며 또한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또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축복받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잠재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칼로스는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었다. 디 플라비아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칼로스는 대화나 말씀에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이론적인 모범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좀더 그와 같이 되도록 하고 또 인생에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모든 것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승영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자극을 주는 살아 있는 모범이며 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마델플라타 스테이크에서 칼로스 디안젤로의 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그가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그가 공부를 마칠 때 대학 역사 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그는 맹인이 교편을 잡는 것을 금지하는 현재 법률과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그는 이미 아르헨티나 공화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

기혼자와 독신자에게 주는 권고

말일성도는 기혼자나 독신자가 교회 활동의 여러 가지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다.

캐슬린 루백

조지 메릴 형제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지역 대표로 봉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왔다. 그러나 갑자기 그 일이 자신에게 닥쳤다.

메릴 형제는 삼십팔 년간 결혼 생활을 한 다음 다시 독신이 되었다. 그의 아내와 사별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반려자를 한번도 잃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단지 독신 상태에서 한 치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이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독신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메릴 형제의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그는 지금 다시 결혼한 상태이다.

독신 상태가 보편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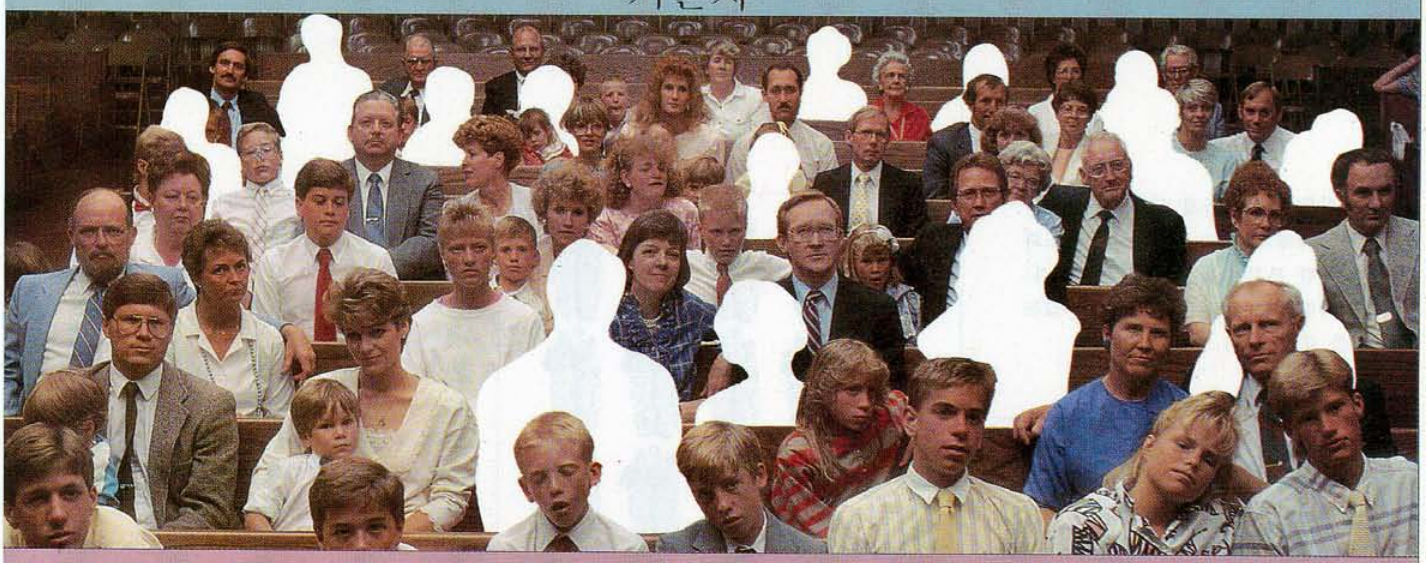
메릴 형제의 경험은 결코 유별난 것이 아니다. 독신 상태는 교회 내에서 특히 여성에게 보다 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교회의 결혼한 회원 가운데 약 삼분지 일이 육십 세가 되기 전에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신의 비율이 이보다 더 높기도 하다.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감 영 대학 사회학 조교수인 마리 콘월은 이렇게 말한다. "한때는 교회 내에서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성도가 독신이 되고 있읍니다."

교회의 인구 분포도 변하고 있읍니다. 이혼한 회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독신 부모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독신 남자는 독신 여성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활동적인 말일성도 여성이 말일성도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읍니다. 특히 비회원이 회원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는 더 심합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거나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교회에서 삼십 세 이상의 활동적인 독신 여성 백 명당 활동적인 독신 남자의 숫자는 십구 명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독신 회원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그들이 전통적인 와드와

기혼자



독신자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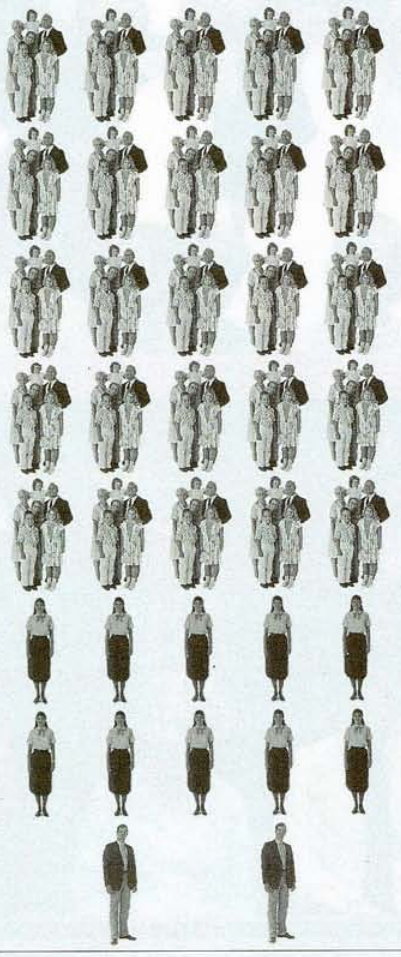
지부 활동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읍니다. 와드와 지부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속감

제인 윌슨은 독신 회원으로 하여금 먼저 솔선수범 하게 하는 것이 소속감을 갖게 하는 첫 단계라고 말한다. "나는 와드의 새로운 회원으로서 이사 온 후 첫 주에 감독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감독님에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와드의 일부분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문 교육 책임자 직책을 맡았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나는 그 와드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와드를 정말로 사랑했읍니다. 그리고 와드 회원들은 곧 내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었읍니다. 그들은 나를 소중한 와드 회원으로 대해 주었읍니다."

엘리자베스 샤 스미스는 최근에 결혼하기 전까지 독신 와드 회원으로서 똑같은 것을 배웠다. "만약 자신이 먼저 우호적으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일하고 직책을 맡고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대접해 줍니다."

독신 회원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모든 독신 회원들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을 한가지로 뭉뚱그려 본다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결혼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독신 회원의 필요 사항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독신 회원이 어디에 살든지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소중하게 대접받는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이 여기 있다.



1. 독신 회원을 친구로 동등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대접함

우정은 연령, 국적, 결혼 상태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노력할 때 사람들은 우정과 공통 관심사를 개발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신 회원인 랄프 핀레이슨은 이렇게 말한다. "독신 남자는 때로는 일반적으로 의롭지 못하다고 추측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독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는 독신 회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읍니다.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독신 회원은 훌륭한 결혼 상태에 들어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메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섯 자녀가 있는 어떤 사람이 이혼하자 소속 와드에서 그때까지 받고 있던 부름으로부터 해임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배척당했다고 느꼈읍니다. 그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자기 옆에 앉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읍니다."

2. 독신 회원을 교회 부름에 봉사하도록 부탁함

메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자질을 갖추고 있고 합당한 독신 회원에게 의미있는 부름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의미있는 봉사를 할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스미스 자매는 "나의 스테이크에서는 감독단에 독신 회원 보좌도 있고 독신 고등 평의원도 여러 명 있고 보조 조직장으로 봉사하는 독신 여성도 여러 사람 있읍니다. 우리의 신권 지도자들은 경험으로부터 독신 회원이 합당하고 능력이 있는 훌륭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았읍니다."라고 말한다.

3. 독신 회원을 와드 및 스테이크 활동에 포함시킴

때때로 독신 회원들은 와드 및 정원회 파티나 성전 방문이나 기타 다른 활동에서 무시당하고 초대받지 못하는 일이 흔히 있다. 그들이 또 초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가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메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와드에서 정원회나 대제사 파티를 할 때는 그 연령의 독신 성인을 기억하고 초대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기혼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인과 함께 참석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혼자 가는 것을 꺼리거나 그 활동이 단지 결혼한 부부만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릴 형제는 독신 회원들의 필요 사항은 결혼한 부부의 필요 사항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의미있는 면에서 다른 독신 회원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대회, 노변의 모임, 사교 활동도 훌륭하지만 독신 성인도 결혼한 부부와 똑같이 함께 봉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4. 수많은 성인 회원들이 결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함

메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무의식중에 독신 회원을 제쳐 두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어떤 와드에서는 결혼한 부부만 성찬식 기도를 부탁받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와드에서는 "성인" 과 "독신 회원"을 위한 배구 연습에 관한 광고가 있었다. 또 어떤 와드에서는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사들이 공과를 결혼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사십 세가 거의 다 된 어떤 독신 여성은 스테이크 부장단과 성전 추천 접견하는 것을 무서워 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자매님은 아주 매력적인 여성인데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읍니까?"라는 질문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질문을 한 다음에는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녀의 사교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그 여자는 결혼하고 싶어하지만 단지 그것이 그녀의 생애에서의 선택이 되지 못했을 따름이다.

마리 콘월은 이렇게 설명한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왜 자녀가 없느냐고 늘 묻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를 고맙게 여기는 것과 똑같이 독신 회원은 자신의 독신 상태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의 배려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5. 독신 회원의 특별한 필요 사항에 유의함

메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 독신 회원에게 일반적인 기혼 부부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독신 회원들이 텅빈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거나 또는 말을 할 상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많은 독신 회원에게 배려깊은 방문 교사와 가정 복음 교사가 특별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신 어머니는 십대 아들의 긍정적인 모범이 되어 줄 수 있는 가정 복음 교사가 필요할 것이며 또 자기 아들을 스포츠 활동이나 기타 사교 활동에 초청해 주는 가정 복음 교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녀를 키우는 독신 남성은 혼자서 처리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가슴 아픈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콘월 자매는 결혼한 사람들이 흔히 독신 회원은 책임이 적으며 생활도 간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현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일상 생활의 여러 가지 일을 함께 분담해서 할 반려자가 없기 때문에 독신 회원은 생활비를 버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것은 특히 자녀가 있는 독신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와드에서는 결혼한 회원 및 독신 회원 모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관심을 보여 주고 함께 노력하고 대화를 나누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부터 성공이 시작된다. 독신 회원과 기혼 회원에 대한 복음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왕국을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면 된다.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모든 영원한 진보의 기반이 된다. □

독신 자매인 캐더린 루벡은 교회 공보부 잡지 특별 기사 책임자이며 본부 청녀 임원이다. 솔트레이크 그링거 스테이크 그링거 18와드에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질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예수님과 루시퍼의 특성과 목적이 서로 그렇게 전적으로 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영적인 형제가 될 수 있읍니까?

제스 엘 크리스텐슨, 유타주 로건, 유타
주립 대학 신학 연구원 책임자

사람들이 루시퍼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지간이라는 교리를 처음 들을 때 특히 그들이 말일의 계시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면 더욱 더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과 예언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루시퍼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따라서 영적인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읍니다. 루시퍼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한 천사였으며 "아침의 아들"이었읍니다. (교성 76 : 25~27 ; 이사야 14 : 12 참조) 예수님과 루시퍼는 모두 위대한 지식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지도자였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장자로서 예수님은 루시퍼의 형이었읍니다. (교성 93 : 21 참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두 영이 그렇게 정반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영원히 존재해 왔던 자유의지의 원리에서 찾아 볼 수 있읍니다. (교성 93 : 37 참조) 경전에서는 루시퍼에 대해서 그가 모반했기 때문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모세서 4 : 4)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는 악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제가 서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가인은 사탄을 섬길 것을 택하였읍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택하였읍니다. [모세서 5 : 16~18 참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그것을 존중하기를 원했읍니다. [창 25 : 29~34].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읍니다. 요셉은 그들을 살려 내려고 했읍니다. [창 37 : 12~24 ; 45 : 3~11])

루시퍼가 반역할 때 썼던 그 자유의지야말로 그가 인간으로부터 박탈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은사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의 제안은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려 온다는 것이었읍니다. (모세서 4 : 1, 3 참조) 그러나 자유의지의 원리는 지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가운데 더 많은 빛과 진리를 받게 됩니다. 또 한편 사탄의 선택처럼 잘못된 선택은 진보를 막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축복까지도 박탈할 수 있읍니다. (교성 93 : 30~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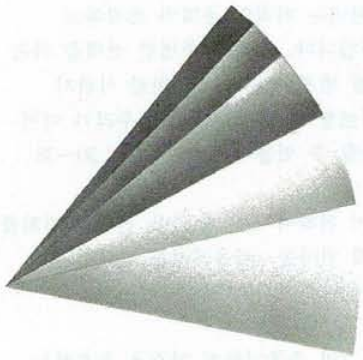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진보하기 위하여 선이나 악을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자유의지를 반대했던 자들—은 선한 것을 반대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재미있읍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읍니다. (고전 10 : 13 참조) 그는 또 우리에게 대속이라는 위대한 은사를 주셨읍니다.

주님께서 이브의 자녀들과 악마 사이를 갈라 놓으실 때 사탄은 이브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브의 자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모세서 4 : 21 참조) 다시 말하면 사탄은 인간들이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충동함으로써 구세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극복하셨읍니다. 또한 그분은 그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벗어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획은 좌절되어 왔으며 결국에는 그는 심판받고 묶여서 지옥으로 영원히 던져질 것입니다. (교성 29 : 26~29 ; 계시록 20 : 1~10 참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한 아들이 반역을 시작해서 모반을 이끌고 또한 승영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슬픔을 단지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생의 싸움을 용감하고 완전하게 싸우고 또한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서 위대한 대속을 가져 온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면서 느끼신 사랑과 기쁨도 추측할 수 있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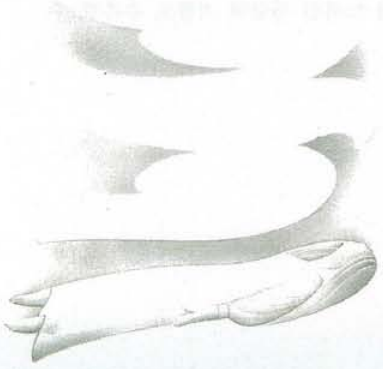
통찰



아주 큰 결과가 지극히 사소한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큰 농장 대문에 다가갔읍니다. 나는 빗장을 올리고 그 대문을 열었읍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미미하였기 때문에 거의 분간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 대문의 한쪽은 반경이 오 미터나 되는 호를 그렸읍니다. 우리가 그 돌쩌귀의 움직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 작은 움직임의 결과로 일어날 큰 행위를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작은 생각, 작은 이야기, 작은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읍니다."(고든 비 힝클리, *엔사인*, 1985년 9월호, 3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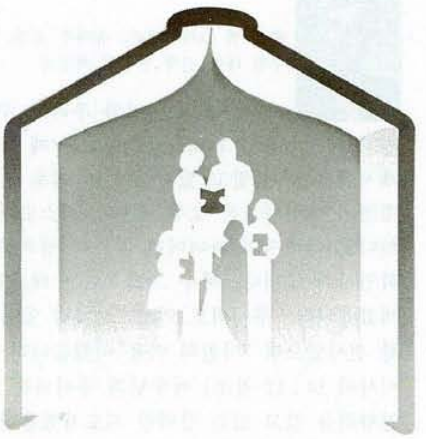


성신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산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침례가 소용없을 것입니다. 침례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읍니다. 행위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읍니다. 침례에는 성신의 부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입김을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나게 해줍니다. 성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권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디어도어 엠 버튼, 브리감 영 대학교 예배 모임 연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의 이름으로 행할 심부름을 보내실 것이다.

"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 지역에서 주님께 봉사할 때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때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신의 권세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며, 그의 이름으로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할 만하고, 임무를 맡길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만민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서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위대한 업적에 합당하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는 교훈을 배우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엠 러셀 밸러드 장로, *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47페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정규적으로 몰몬경을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정과 그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건의 정신이 커지며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다투는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고에 더 잘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의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신앙, 소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박애가 우리 가정과 생활에 풍성하게 되어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980년 11월호, 97페이지) □

인생 여정에서의 행복

밀드레드 바멜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이 세상에 대한 걱정에 관한 것이다.

먼 옛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떤 젊은 어머니가 자신의 작은 집에 하나밖에 없는 창문을 통하여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회전초(풀의 일종) 덩어리가 대평원의 땟장으로 만든 그녀의 집으로 바람에 날려 들이치고 있었다. 그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녀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줄 방법을 발견하지 않는 한 이 크리스마스에 자녀가 실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누가복음에 있는 잘 알려진 성탄절 이야기를 읽어 주고 있을 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아이들을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잘 덮어 준 다음 창조적인 활동에 몰두했다. 회전초를 모아서 그것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목록 표제지로 오색 찬란한 장식품을 오려 내어 그것을 "트리"의 가지에 끈으로 달아 맸다. 레이스 천으로 장미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 꼭대기에 얹었다. 마지막으로 접시를 자녀의 숫자에 맞춰 준비하여 건포도를 조금씩 놓고 자녀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사랑에 관하여 적은 쪽지를 하나씩 얹었다.

이 어머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일에 정력을 소모하지는 않았다. 자기 자신의 빈약한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즐거운 추억거리를 창조했다. 그 옛날 그 젊은 어머니를 인도해 준 그 지침은 지금도 진실되다. 우리에게는 언제까지나 선택할 대상이 있으며 이 필멸의 생에서 그런 선택을 하도록 배정받은 시간을 갖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했읍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이 2 : 11,16)

가난과 질병은 인생의 일부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문제점에 빠져 있는 것은 다른 면에서의 성장을 제한한다.

우리는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오늘을 명예롭게 또 유우머를 갖고 살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 가운데 행복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된다. 주어진 그 순간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경우가 흔히 있다. 나중에 그 순간을

회상해 볼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회상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그 시련이 명예로운 추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시련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의지는 분명히 갖추고 있다. 내가 열 살이 되었을 때 매일 밤 저녁 식사에 쓸 감자를 깎는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때 이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매일 불평하자 할머니는 내가 어쨌든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도록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번은 우리 집에 숙모님이 오셔서 내 어깨를 두드리고 웃으시며 "이 일도 지나가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지혜는 여러 해 동안 그 즐겁지 못하고 따분한 일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성장할 여지"를 허용함 우리는 인생의 시련에 대처하려고 애쓰는 동안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비판할 때가 너무 많다. 부정적인 태도는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 우리 자신을

능력도 별로 없고 재능도 별로 없는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평생 동안 언제나 문제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인내력을 갖고 인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련에 맞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빈곤이나 질병이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으나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면 우리의 성장을 제한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더 발이 걸려 넘어질 것을 보장해 준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는 것에 대하여 늘 생각한다면 행하는 것을 계속할 시간도 힘도 갖지 못하게 된다.

긍정적인 면을 찾음 내 딸은 그녀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행복은 항상 자신의 손길이 미치는 곳보다 조금 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이전에 대학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등 학교를 마쳤다. 그러나 대학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딸은 선교사로 봉사할 때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선교 사업을 하면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내가 과거의 실망스런 일에 내 관심을 계속해서 집중시키고자 한다면, 나의 인생은 참으로 슬픈 것이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선교사로 나간 딸이 자신의 모든 경험에 관하여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찾고 매일매일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유우머 감각을 쌓겠다는 약속을 일기장에 적었다. 딸은 행복이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고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 십이 년이 지나 다섯 자녀의 어머니가 된 오늘날에도 딸은 여전히 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는 과거에 버려 둠 물론 우리는 모두 필멸의 시험 단계에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는 과거에 묻어 두고 매일매일을 새로운 성취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만일 내가 과거에 실망했던 것에 계속해서 정신을 집중한다면 나의 생애는 정말로 슬플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옛날부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했다. 나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좀더 해의 왕국에 합당한 상태로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내려고 애쓴다. 이런 노력은 기도와 합쳐질 때 인생의 부정적인 면에 맞서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말로, 육체적으로, 또 성적으로 학대 행위가 자행되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 났다.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기는 했으나 친절은 드물었다. 결혼한 후 오 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고 한 아기를 낳은 다음 우리가 원했던 규모의 가족을 갖기 위하여 여섯 자녀를 양자로 맞아들였다. 아이들이 다 자라자마자 우리가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고 노년을 함께 즐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 남편이 병이 들어 죽었다.

"온전한 밝은 빛" 나에게는 니파이이서 31장 20절의 메시지가 나의 매일매일의 노력에 필요한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가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는 유우머로 마음을 여십시오.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약하게 느껴질 때라도 기쁘게 지키며 끝가지 참는 이 목표는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유우머와 명예를 지니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소한 일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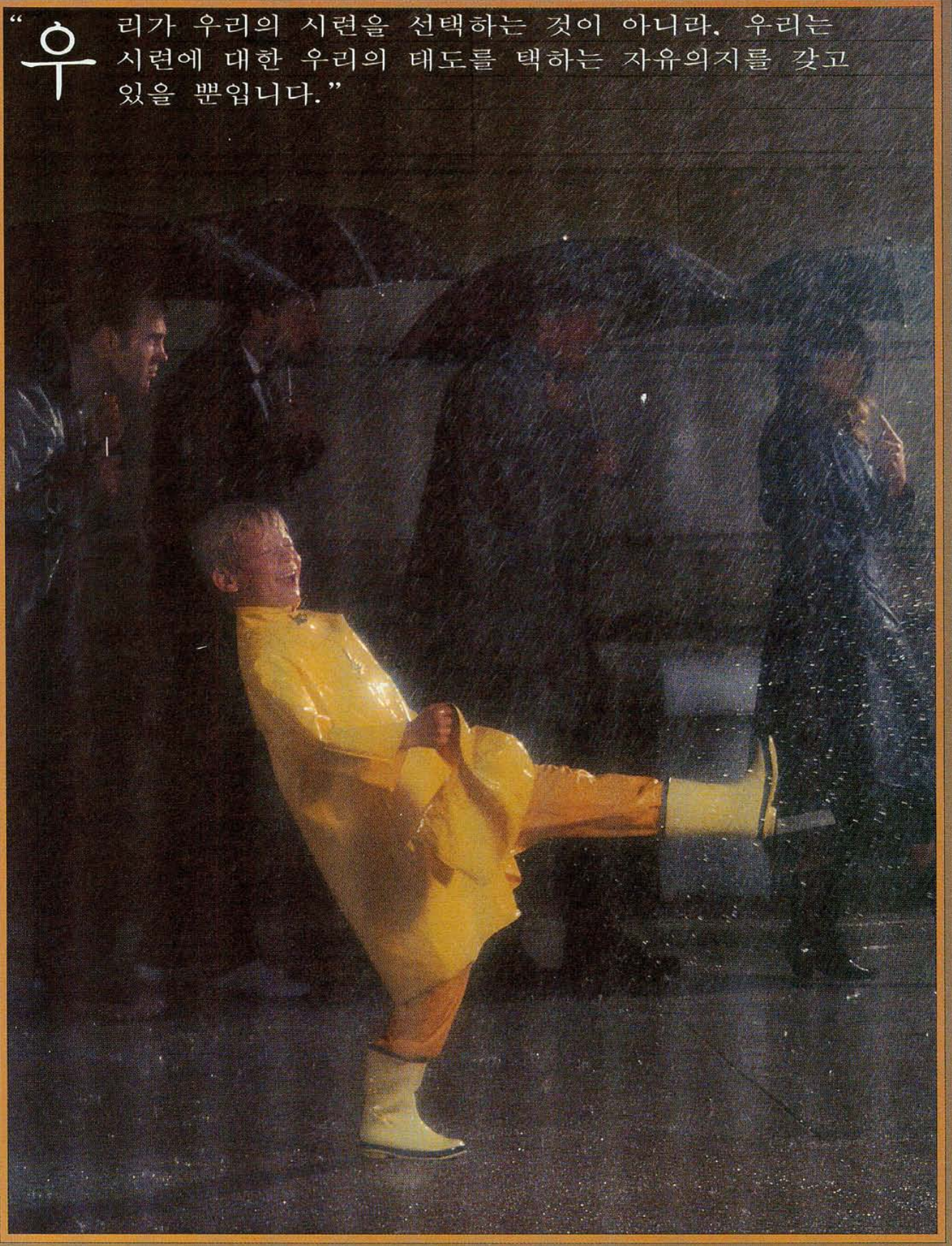
나는 인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건전한 유우머 감각이 내가 지니고 있는 해의 왕국에 속하는 잠재 능력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비젼에 관한 시야가 펼쳐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다.

우리 가족이 맨처음 산으로 캠핑 여행을 한 것이 좌절을 웃음으로 바꾸는 경험이 되었다. 밤의 한기가 우리 텐트에 가득 차게 되자 우리는 가지고 간 스웨터와 코우트를 있는 대로 다 걸치고 침낭 속으로 몰려 들어가서 온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몸을 붙이고 드러누웠다. 우리는 다른 가족이 추운 밤에 대비하여 텐트를 치고 준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캠프장이 조용해졌다. 우리의 작은 그룹의 정적을 뚫고 어떤 네 살된 아이의 좌절감에 빠진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몸을 돌려 눕지도 못하겠어." 다른 텐트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모두 그 순진한 아이의 유우머러스하고 진실된 말로 인하여 더 따뜻해졌다.

시련으로 생에 대한 열의가 수그러지게 될 때는, 친구와 가족과 더불어 따스한 정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시련으로 인생에 대한 열의가 식을 때에는 친구와 가족의 따뜻한 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어두운 밤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우머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한다. 추운 겨울 밤에 회전초가 바람에 날려 와 들이칠 때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슬픔보다는 기쁨을 택해야 한다. 행복에 대하여 마음이 이끌려야 한다. □

"우리가 우리의 시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택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을 인도함

웨인 비 린

어떤 선교사가 어떤 선교 지역에 가기만 하면 그곳은 성장하는 것같이 보이며 그런 일은 그 선교사가 어디로 가든지 똑같다. 회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모든 사람이 "영을 느끼는 것"같으며 멀지 않아 침례가 늘어 난다.

이런 행복한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것을 이 선교사들이 갖고 있거나 행하고 있을까? 나는 아리조나주 홀부루크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의 찾았다고 생각한다.

"친애하는 린 부장님,

"저는 한 동안 선교부장님에게 편지를 써서 두란고에 있는 회원들이 브라운 자매와 포스 자매가 이곳에서 일함에 따라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알려 드리고 싶었읍니다. 그들은 헌신과 모범에 의하여 이 세상의 모든 설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선교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태도가 바뀌게 했읍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갈 시간이 없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 년간 살았는데 그동안 선교 사업에 관한 한 두란고는 죽어 있는 상태였읍니다. 우리는 장로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자매들이 어떤 특성을 지녔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읍니다. 그들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회원들 때문이라고 늘 말하지만 이 두 명의 특별한 자매 때문에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었읍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읍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읍니다.

"어제는 그들의 준비날이었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집 세탁기와 건조기를 써서 빨래를 했읍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우리가 바로 어젯 밤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몰몬경을 준 비회원 친구를 위하여 제가 남편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저녁 식사에 쓸 케익을 구었읍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용기를 지녔던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읍니다.(그들이 저 대신에 케익을 구운 것은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나에게 선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준다면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선교부장님이 그들이 규칙을 지키고 모든 것을 올바로 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아 주셨으면 하고 바랄 따름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온 지 여러 달 되었지만 어제 우리 집에 온 것이 두번째 아니면 세번째밖에 안되는 일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일요일에 그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읍니다. 저는 그들이 그들의 참된 사랑을 지니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읍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만일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장로이든 자매든 모두 이 두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선교 사업을 완수한다면 교회는 믿을 수 없는 성장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저는 이 자매님들을 만나 그들의 헌신을 목격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틀림없읍니다. 선교부장님께서 이 와드의 누구에게 물어 보셔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부모님도 아시도록 부모님에게도 편지를 쓸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들이 그 주소를 알려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관하여 자랑할 수가 없읍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특별하며 저는 선교부장님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진실한

"로버타 셜리와 진 셜리 올림"

우리의 좋은 모범을 통하여 길을 보여 줌으로써 많은 인생의 도전에 맞서고 부드러운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정문을 쓰면 옛날의 어떤 현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아, 너는 네가 가고 있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 어쩌면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가고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생활과 수많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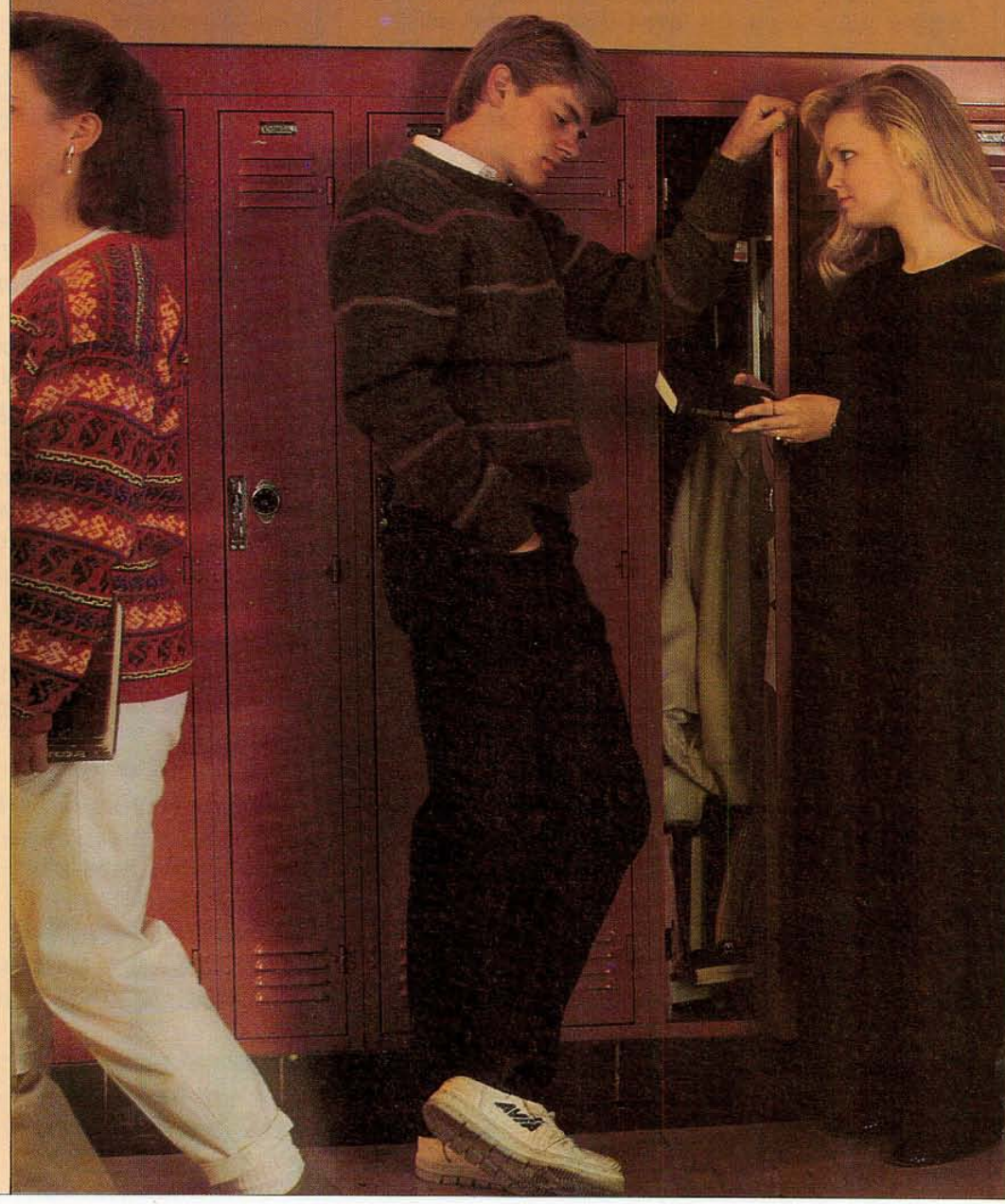
자신의 완전한 모범에 의하여 "나를 따라 오너라"는 이 단순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신 분은 바로 위대한 선생이신 주님이었다. □

어떤 선교사들은
어디서 봉사하든지
성공을 거둡니다.
그 비결은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이클 맥콩키 사진

기이한 업적

크리스 크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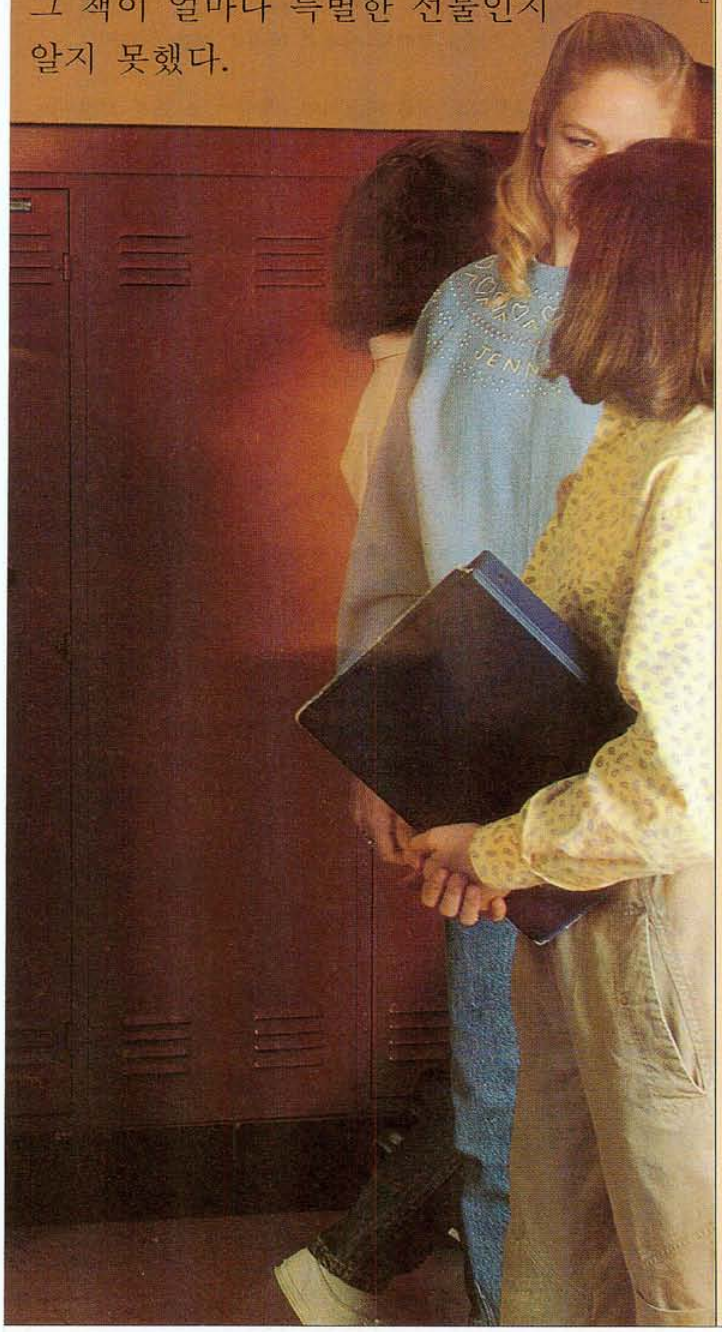


나의 책꽂이에는 오래된 낡은 종이 표제지로 된 *기이한 업적*이 한 권 있다. 지금 와서는 그 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그것보다 크고 좋은 표제지로 된 책을 갖고 있다. 내가 그 해진 검정색 종이 표제지로 되어 있는 책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책이 지니고 있는 감상적인 가치 때문이다. 어떤 매우 특별한 사람이 십삼 년 전에 그 책을 나에게 주었으며 그 책이 내 인생을 바꾼 것이다.

리즈는 말일성도였으나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린 적은 한번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건전한 태도와 그녀의 활달하고 행복한 태도에 마음이 끌렸다. 때때로 그녀의 종교에 관하여 놀렸으며 친구들이 나에게 "얌전빼는 몰몬"과 데이트한다고 놀렸으나 그 데이트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나는 리즈를 좋아했다. 사실상 나는 그 귀여운 작은 몰몬 소녀와 사랑에 빠져 들고 있었다.

우리는 좀더 친한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즉 가족, 친구, 종교에

"나는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내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 나는 그 책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알지 못했다.



스코트 테너 사진

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천주교인이었으며 그녀는 말일성도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죽음 이후의 생, 거의 모든 종교적 주제에 관하여 우호적인 토론을 하며 데이트를 끝낸 적이 많았다. 나는 종교에 대하여 헌신적은 아니었다. 나는 특별히 신앙이 강한 천주교인은 아니었으나 몰몬이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더 리즈는 자기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우리 두 사람만 따로 있게 되면 거의 언제나 리즈는 우리의 대화 가운데 몰몬 교리에 대하여 언급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리즈는 전세에서의 존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세 등급의 천국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녀의 자기 교회에 대한 관심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종교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성공하는 일이 있으면 리즈는 곧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초등협회나 그녀를 가르쳐 주는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했다.

리즈는 내가 그녀의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나는 거절했다. 나는 몰몬 땅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을 거절했다.

한번은 노변의 모임에 함께 가도록 설득했다. 그때 폴 에이치 던 장로께서 말씀했으며 비록 그분의 말씀은 기억이 안나지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리즈의 반응은 기억하고 있다. 리즈는 울고 있었다.

나는 "이봐 리즈, 웬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물었다.

리즈는 눈물을 닦고 나에게 미소지었다. "아니, 아무 것도 잘못된 것 없어. 단지 던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무나 훌륭한 영을 느꼈기 때문이야." 그녀의 대답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면 왜 울어야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리조나 성전은 그녀로 인하여 방문하게 된 유일한 또 하나의 몰몬 건물이었다. 내가 리즈에게 오늘 밤 데이트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언제나 "성전에 가요,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내가 굴복해서 우리는 몇 번 그곳에 갔다. 보통 우리는 정원을 거닐고 훌륭한 외관에 대하여 감탄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세번째 방문한 이후 리즈는 방문자 센터 안으로 함께 가 보자고 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화를 보고 친절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 영화를 보고 소개가 있은 다음 우리는 방문자 센터를 견학했다. 견학이 끝날 때 우리의 안내자는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간증했다. 리즈는 울고 있었다.

그런 경험을 한 다음 성전은 그녀가 좋아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크리스, 성전이 참 아름다운 곳이 아니예요? 그곳이 바로 언젠가 내가 결혼할 곳이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그것을 약속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곳에서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 그곳은 사실 성당과 전혀 다를 것 없어."

"그것은 달라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결혼할 때는 영원히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 참 좋아. 나는 언제나 참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어 왔거던."

리즈는 더 심각해졌다. "모르시는군요.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시 리즈는 그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성전에서 결혼하리라는 것을 설명했다. 다른 어떤 장소도 그녀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지만 만일 말일성도가 아닌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만일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디에서 결혼하든지 상관없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함께 있으며 사랑한다는 점이야."

리즈는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두 사람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영원한 관계가 아닌 것은 어떠한 것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리즈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리즈는 성전 아닌 곳에서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나는 참된 사랑에 있어서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어떤 형태로 결혼하든 사랑은 영원하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면 할수록 리즈는 성전에 대하여 또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 들고 있는 것은 분명했으나 리즈는 성전 결혼에 관한 한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무르익어 가면 그녀가 마침내는 굴복하고 다른 곳에서 결혼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리즈가 나를 만났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그의 음성은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크리스, 나는 우리가 더 이상 만나면 안된다고 결정했어요. 우리가 함께 다니는 것은 두 번 다시—영원히 안돼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야?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 안해."

리즈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나는 당신과 데이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리즈, 지금 흥분하고 있을 따름이야. 우리가 늘 해온 것처럼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어때? 조금 지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리즈는 뒤로 물러섰다. 리즈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아니예요.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리즈는 나에게 반짝이는 검정색 종이 표제지로 된 책을 한 권 쥐어 주고 달아났다.

성전 결혼에 관하여 그녀가 그렇게 완강한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왜 타협하려 하지 않는가?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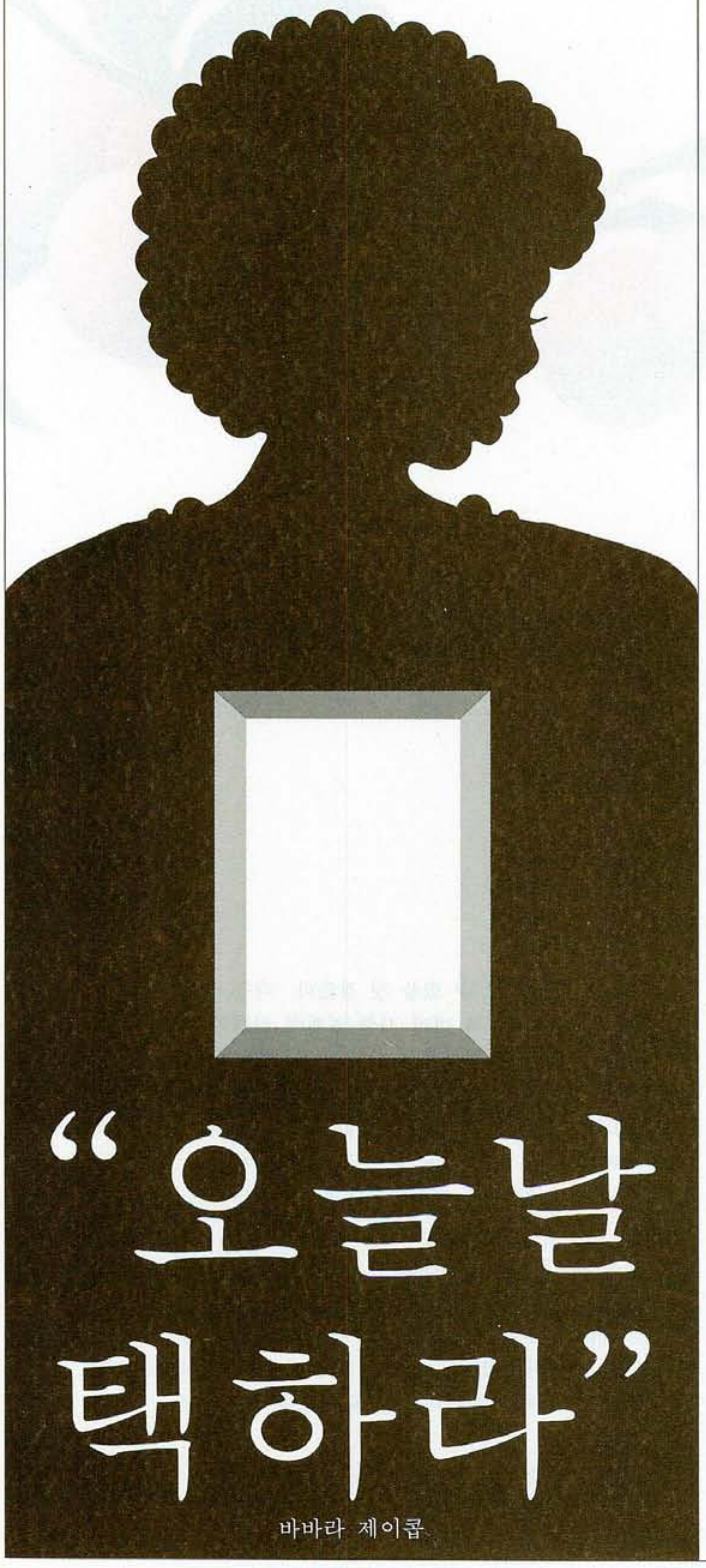
그렇게 헤어진 몇 주 후 나는 그 조그만 검정색 종이 표제지로 된 책을 찾아냈다. 아마 그 책이 나의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리라.

나는 그 책, *기이한 업적*을 펴고 몇 페이지를 대충 훑어 보았다.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에 관한 부분이 눈에 띄어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읽었다. 요셉 스미스의 시현에 관한 아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또 그의 이야기가 참되다면 그가 설립한 교회도 틀림없이 참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 후 나는 선교사 토론을 배우기로 했으며 복음 원리에 대한 간증을 빠르게 얻었다. 그 토론을 배운 후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많은 기도와 금식과 심혈을 쏟은 탐구가 있은 후 침례받았다. 침례식에는 리즈가 참석했다. 리즈는 울고 있었다.

내가 침례받은 지 일 년이 조금 지난 후 리즈와 함께 다시 성전을 방문했다. 이때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 모든 것은 십삼 년 전의 일이었다. 오늘날 그리고 매일 우리 가족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 귀여운 어린 몰몬 소녀의 강한 간증에 감사하게 된다. 나는 리즈가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또 궁극적으로는 나에게도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는 문제에 대하여 타협을 거절할 만큼 충분한 용기를 갖추고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다. □

나는 텅 비어 있는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했다.



"오늘날 택하라"

바바라 제이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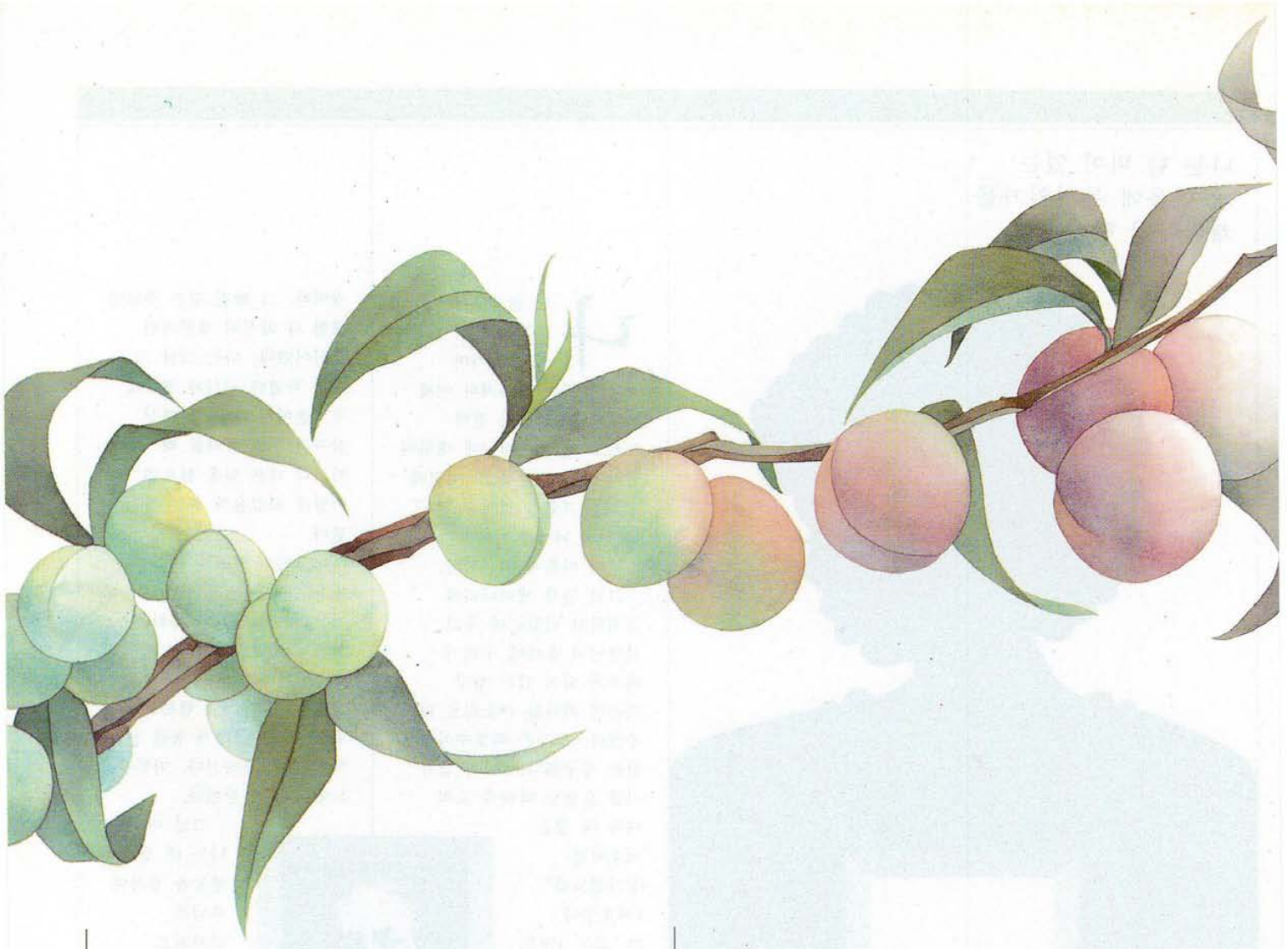
나는 늘 그렇듯이 혼자 걸어서 학교로 가며 감옥에 있는 아버지와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 전혀 모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왜? 왜 하필 나에게?"라는 의문이 마음에 떠올랐다.

그날 늦게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올해에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는 성구 가운데 하나를 큰소리로 읽어 주셨다. 그것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성구였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 : 15) 그것은 마치 누가 나에게 직접 "바바라, 네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야! 전에는 그 성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나의 생활은 그때까지 굉장히 어려웠다. 물론 가고 싶을 때는 교회에 갔다. 내가 배운 초등협회, 주일학교, 청녀 공과는 모두 올바른 것이지만 무언가 빠진 것이 있었다. 마침내 나는 그 빠진 것을 평일날에 행하는 자그마한 세미나리 반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 빠진 것은 주님에 대한 나 자신의 개인적인 헌신이었다. 나는 그날 그 매우 특별한 교사와 영에게 귀기울이지 않고 그 대신 잠자거나 그 공과를 빼먹거나 다른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가 염려해 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좋은 일인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생을 잘 견디어 나가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길 분을 택할 것을 원하신다. 따뜻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해 왔다. 그것은 늘 쉽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부탁드리기만 하면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



제닌 월시 밧스가아드

나는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은 멋진 여름 방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강으로 가며 친구들과 오랫 동안 실컷 잡담하고 사과 나무 밑에서 독서하며 한가로운 오후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악몽의 시작이 되었다.

그날 아침 거울을 보았을 때 목에 작지만 분명하게 물집이 생긴 것을 보았다. 즉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여러 달 동안 우리 학교에 수두창이 번져 있었다.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즉시 내가 동생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게 하려고 내가 방에서 못 나오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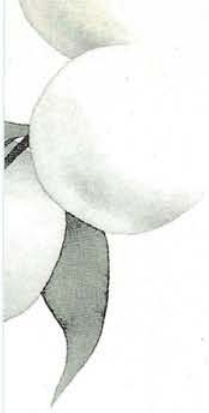
첫날은 그럭저럭 견딜 만했다. 어머니가 식사를 갖다 주셨다. 동생들이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방의 문틈으로 집어 넣어 주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문을 통하여 오얏 나무를 볼 수 있었다. 그때는 유월 초순으로서 수많은 작은 녹색 오얏 열매가 매일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붉은 오얏 열매의 신 맛을 혀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은 첫날만큼 쉽지 않았다. 나의 얼굴과 머리 가죽 전체에 커다란 수두창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지나는 가운데 그 물집이 조금씩 조금씩 밑으로 퍼져서 마침내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다 덮었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베이킹 소다로 온 몸을 닦아 주셨으며 숟가락에 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셨다. 의사에게 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의사는 "이 환자는 내가 본 환자 중에서 가장 심하게 걸렸읍니다."라고 말했다.

며칠 후 그 고통과 가려움과 얼굴에 흉터가 남을 것에 대한 걱정이 극에 달했다. 목구멍에까지 물집이 생겨 먹는 것과 심지어는 무엇을 삼키는 것까지 어렵게 되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했다. 어머니는 "글쎄,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위안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날 밤 거센 폭풍이 불었다. 나는 잠을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는 가운데 밤새 그 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견디라

아침이 되었을 때 더욱 우울했으며 완전히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절망한 상태로 나의 침실 창문으로 천천히 걸어 갔다. 발바닥의 물집으로 인하여 걷는 것이 어렵고 괴로왔다. 나는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 보았다. 나는 눈물어린 눈으로 그 바람으로 인하여 오얏 나무의 익지 않은 작은 열매가 거의 다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불과 소수의 오얏 열매만 나무 가지에 꼭 매달려서 남아 있었다. 그들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익고 살아서 추수하게 되겠지.

문득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견디는 능력이 그 떨어진 열매와 그 폭풍우를 견딘 열매의 차이를 가져 온 것이다.

나는 기도할 새로운 말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고통을 덜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대신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과 부모님과 의사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혼자서 고통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하자 나의 고통이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견디는 능력이 커졌다.

몇 주 후 거의 완쾌되었을 때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오얏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다. 부드러운 저녁 미풍 속에 녹색 나뭇잎이 태양의 마지막 빛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몇 주 전에 폭풍에 떨어진 작은 오얏 열매가 노랗게 물들고 딱딱하게 오그라져서 쭈글쭈글해지고 풀 속에서 거의 사라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오얏 열매는 굵어져 있었다. 그 열매의 단단하고 빛나는 녹색 껍질은 석양의 부드러운 햇빛처럼 그 안에서부터 빨갛게 불타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또 다른 폭풍이 나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면 나는 그 고통과 그 나무와 그 열매와 추수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면 그 옛날 침실에서 혼자 기도드렸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견딜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를 기억한다. □